



미주 심장서 울려 퍼진 모교 사랑의 노래

22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워싱턴DC에 1백여 명 모여



지난 6월 20~24일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한 모국 방문단이 미주동창회 초청을 받아 제22차 평의원회의에 참석했다. <관련기사 3~4면>

뉴욕 환영회 대성황... 潘基文 UN사무총장도 한자리에



지난 6월 25일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의 뉴욕 방문을 환영하는 만찬 행사가 열려 큰 성황을 이뤘다. <관련기사 4면>

관악출추

故 盧武鉉대통령 초창기 시절 서울대 폐지론이 나왔다. 한국 교육의 병리현상은 서울대 존재 때문이라는 논리 때문이었다. 모두 서울대를 가려고 하니 과외 열풍 등 교육 왜곡현상이 나온다는 이유였다. 이런 이유들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서울대가 미움을 받은 것은 민중주의 혹은 대중주의와 대치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서울대는 그 존재 자체가 엘리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그것을 위해 근 반세기를 투쟁해 제도로서, 절차로서 민주주의는 이제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민주주의의 내용이다. 해변에서 민주주의라는 조개를 잡긴 잡았는데 조갯살은 없고 껍데기뿐인 조개껍

질을 주운 것이다. 고대 그리스를 들먹일 것도 없이 민주주의는 그 속성상 부패할 수밖에 없다. 부패의 원인은 다 수결이라는 제도에서 오는 것이다. 민주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원숙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야 하는데 대중은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데 있다.

대중은 자신의 이익에만 민감하고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판단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 대중이 내

서울대인은 귀족(?)이 돼야

린 결정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는 득이 안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끝은 우민정이나 폭민정으로 가기 쉽다. 지금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한 것도 바로 수입을 무시한 복지 지출 때문이다. 다수는 눈앞의 이익과 편한 것, 쉬운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대중의 표를 모아 정권을 잡는 민주주의는 그래서 타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심을 잡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런 역할을 귀족들이 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이상적인 정체를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정이라고 말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시절에 귀족정을 하지는 말인가? 나는 여기에 서울대인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대라는 집단은 이 나라의 엘리트 집단이다. 엘리트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이익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집단이 없는 민주주의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울대인은 귀족(?)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 귀족은 혈통을 자랑하거나 특권을 누리하고자 하는 귀족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늘 생각하며 그를 위해 먼저 희생하려는 사람들이다. 서울대의 기본교육은 공동체를 위해 그런 희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文昌克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본보 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가끔 관악산을 등반할 때마다 “역시 등산길보다 하산길이 위험하다”는 점을 실감한다.

필자가 근무했던 청와대의 뒷산 북악산도 가파르고 험하다. ‘어공’(어찌다 공무원 댔다는 의미로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들을 지칭해 필자가 만든 造語)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휴일등산을 갔다가 급한 호흡을 받고 뛰어내려오던 중 낙상할 뻔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하산길이라고 해서 위험과 고단함만 가득 찬 고행길은 아니다. 산행을 끝냈다는 안도감, 한 잔 뒤풀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주변의 풍광과 사람들의 모습이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올 때 보이네’란 어느 시인의 표현 그대로다.

5년여의 어공생활을 청산하고 하산해 저잣거리에서 지내면서 지금 알았던 것을 그 때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적지 않게 느낀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차별화란 이름 아래 시행착오가 반복돼선 안 되는데’라는 안타까움이 크다. 막상 일하면서 보니 ‘국정의 70% 이상은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선배들 말이 와 닿았다.

이와 관련해 한 장면이 떠오른다. 오바마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2008년 말 대통령을 수행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올브라이트 前 국무장관을 포함해 민주당 외교안보 인수팀을 비공식으로 만난 자

리에서 “오바마 정부는 앞서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했던 실수를 되풀이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상당 부분 이어갈 것이란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감탄한 일이 있다.

부시 정권 8년간 클린턴 정권을 부정하는 ABC (Anything But Clinton)로 일관한 뒤끝이기에 감동도 더 컸다. 잘못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정적의 입장이라도 받아들이는 미국적 정치 지혜의 단면을 본 듯했다.

毛澤東 사후 鄧小平이 “毛주석의 功은 70%, 過는 30%”라며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켰던 중국적 정치 지혜는 또 어떤가.

5년 단임제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단절과 청산의 역사를 반복해왔다. 그러다 보니 권력의 등산길에만 관심을 두지 하산 이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든 재창출되든 국정운영의 온축된 경험이 이어져 가는 국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란 이름의 정치적 소모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끝은 政爭의 격화와 정치 퇴행이다.

下山의美學

李東官

前청와대 홍보수석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관악산에 와서

朴榮姬 (행정61-65)시인

뭉게 구름 그만해도
나는 오늘 만석인데

관악산 햇 뻘꾸기
너마저가 나를 울어

뻘뻘썩 뻘뻘썩 뻘썩
들쭉레만 혼자 진다

그리워서 하얀 구름
눈이 멀어 하얀 구름

해종일 뻘꾸기가
목을 놓아 우는 날에

관악산 맑은 바람
플어놓고 내가 왔다.

동문칼럼

2004년 11월 설립된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1995년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일본연구실이 모태가 되어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일본자료센터와 일본연구센터를 거쳐 한국을 대표하는 일본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았다. 2008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HK 해외지역연구소로 선정돼 올해로 5년차에 들어선

다. ‘현대 일본 생활세계의 세계적 연구 거점’ 구축을 목표로 내건 일본연구소는 현재 소장자를 필두로 한 10명의 전임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학내 17명에 이르는 겸무연구원을 포함하면 30여명에 가까운 교원과 연구 인력이 일본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에는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연구소 평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일본을 분석함에 있어 ‘삼중의 균형(balance)’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먼저, 근대 일본과 현대 일본의 균형 잡힌 연구

된 현안 중심의 분석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연구소는 이러한 연구 노력들을 ‘일본비평’이라는 학술지를 통해 발표하는 한편, SNU 일본연구총서 및 현대일본 생활세계총서라는 기획물로 출판하고 있고, ‘Reading Japan’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대중을 향한 발신도 지속하고 있다. 연구소가 발행한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그리고 ‘전후 일본 그리고 낯선 동아시아’는 문광부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됐고, ‘전후 일본의 보수와



朴喆熙

(정치82-86)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

모교 일본연구소장

표상’은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Reading Japan 시리즈로 발간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 호평 판매 중이다. 연구소가 기획한 ‘동일본 대진재와 사회변동’이라는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기초연구 우수성과로 뽑혔다.

일본연구소는 서울대 구성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 ‘Junior Fellow’제도를 도입해, 20명의 학부생들에게 ‘생활세계 탐구 교실’을 열어주고 있다. 해외 연구자들 및 일본연구기관들

균형감 있는 일본 연구를 지향한다

이다. 우리와 불행한 과거를 가진 근대의 일본과 동아시아의 선두주자인 현대 일본을 동시에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인문학적 연구와 사회과학적 연구의 균형과 융합을 지향한다. 일본의 역사, 문학, 철학이라는 인문학적 바탕에 대한 연구를 공고히 하는 한편, 변화하는 일본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셋째, 일본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현안 분석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일본 연구의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일본을 이론적으로 해부하면서도, 한일 간 또는 동아시아와 관

과의 연계도 심화시켜 가고 있다. 올 4월에는 일본정치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콜럼비아대학 Gerald Curtis교수를 모시고 ‘아베의 일본’에 대한 강연을 일본어로 실시했고, 6월에는 와카미야 아사히신문 前주필을 모시고 ‘일본우경화의 실체와 한일관계’라는 강연을 가졌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균형감 있는 연구, 소통과 융합에 입각한 네트워킹, 국제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대표하는 일본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가고 있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孔大植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瑛, 李東官, 李啓聖, 金侁日,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新載, 林香默, 邊廷洙, 朴秀璋



林光洙회장은 격려사에서 “미주동창회는 미주 전역에 있는 동문들의 단합을 돕고 한인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金殷宗회장(右)이 12대 吳仁煥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이양했다.

미주동창회 吳仁煥회장 체제 출범

차기 회장에 필라델피아 孫載沃동문

林光洙회장 격려사 <요지>

국제 정치와 외교의 중심인 이곳 워싱턴DC에서 제22차 평의원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평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창회장직을 맡아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총동창회는 지난해 동창회관 임대수입 중에서 25억9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후배 재학생들에게 지급했으며, 11월 12일 모교에 70억원을 지원하는 장학연구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동창회는 모교에 세계 초일류 학과와 학부를 만드는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모교의 우수한 강의를 인터넷에 무상 공개함으로써 모교가 국민 속으로 깊숙이 다가가고 국민 평생교육과 대학 강의 수준의 비약적 향상을 돕는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의 개발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년 후 개학 1백20주년을 맞는 모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서울대 120년사’ 편찬을 계획 중이며, 모교와 합의가 돼 동창회 주관으로 학교 지원을 받고 편찬하기 위해 곧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1백억원 규모의 ‘서울대 역사기념관’을 건립해 모교에 기증할 계획을 세우고 이 역사기념관에 전시할 여러 가지 자료를 모교와 공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 집행부 및 동창회보 발행권이 지난 7월 1일자로 LA에서 워싱턴DC로 이관됐다. 본회 林光洙회장, 孔大植·李炯均부회장 등 제24대 회장단은 미주동창회(회장 金殷宗)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동안 워싱턴DC를 방문해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주지역 동문들을 격려했다.

6월 22일 열린 제22차 평의원 회의에서는 신임 吳仁煥(전문기상63-67)회장을 비롯한 제12대 집행부의 구성을 마치고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제13대 차기 회장에는 필라델피아지부 孫載沃(가정관리77-81)前회장을 선출했다.

미주동창회는 지난 6월 22일 버지니아주 웨스턴 타이슨스코너호텔 오크스볼룸에서 본회 방문단 및 평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평의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창회 현안 및 사업계획, 제13대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결정했다.

12대 임원 및 감사 선출

사회를 맡은 成周慶(무역68-72)사무총장의 성원 보고에 이어 金殷宗(경제59-63)회장은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평의원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미주동창회가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 자리에서 얻은 좋은 결론을 통해 차기 회장단에 동창회의 깊은 뜻을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환영사를 전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격려사에서 본회가 모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장학연구지원사업의 현황 및 기대효과와 모교 120년사 편찬, 역사기념관 건립 계획 등에 관해 설명했으며 이에 평의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큰 박수갈채를 보냄으로써 총동창회 사업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표명했다. <격려사 요지 참조>

이어 白玉子(국악71-75)총무국장이 사업 보고를 했으며 李種度(토목공학66-70)기금모금위원장이 브레인 네트워크 및 이벤트 사업 보고를 했다.

본회가 비용을 협찬한 평의원 환영 오찬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제13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미주동창회의 복수 후보 추천 규정 에 따라 지난 1월 추천된 뉴잉글랜드지부 尹相來(수의학62-66)前회장과 필라델피아지부 孫載沃前회장이 최종 후보에 나섰으며, 표결 끝에 孫載沃동문이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孫동문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편 미주동창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제12대 吳仁煥회장이 金殷宗회장으로부터 동창회기를 인계받고 제12대 회장단 체제의 출범을 선포했다. 새 집행부 임원으로 鄭平熙(토목공학71-75)사무총장, 柳弘烈(전문74-78)재무국장, 白玉子조직국장을 임명하고 미주동창회보 편집위원장에 張景泰(지구과학교육75-79)동문을 선임했다. 또 朴平一(농경제69-76)감사를 재선임하고 朱基睦(수의학68-75)동문을 신임 감사로 선출했다.

이날 吳仁煥회장은 주요 사업계획안을 발표하며 동창회 재정지립 연구팀 구성, 지부 간 횡적 네트워크 강화, 젊은 동문의 참여을 증대, 미국 명문대학 동창회와의 교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각 프로젝트를 담당할 5명의 부회장 선임 권한을 요청해 이를 인가 받았다. <인터뷰 참조>

평의원회의가 끝난 뒤 오후 5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평의원과 가족 1백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방문단 및 평의원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金殷宗회장님과 제11대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2년간 미주동창회를 이끌어 가실 吳仁煥회장님과 제12대 집행부 여러분 또한 역대 회장단 못지 않은 훌륭한 업적을 이룩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모교 吳然天총장은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 “모국의 안정과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의 총정에 늘 감사드리며, 이번 평의원회의가 동문 여러분의 가치와 자부심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대학원동창회 崔鍾庫(법학66-70)회장은 “미주동창회의 브레인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앞으로 대학원동창회와 특별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吳仁煥회장이 주창한 집단지성 강화에도 발걸음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힌 큰 박수를 받았다.

만찬서 격려금 전달

이어 본회 林光洙회장이 미주동창회 金殷宗 前회장, 관악후원회 盧明鎬(토목공학61-65)부회장, 미주동창회보 池仁洙(상학59-65)편집위원장, 成周慶사무총장, 白玉子총무국장, 강호석(경영81-94)재무국장, 李種度기금모금위원장과 뉴욕지부 金昌洙(약학64-4면에 계속)

미주동창회 제12대 吳仁煥회장 인터뷰

지난 7월 1일부터 미주동창회를 이끌고 있는 吳仁煥(전문기상63-67)회장으로부터 취임 소감 및 사업계획 등을 들어봤다.

- 소감 한 말씀.

“지난 20여 년간 전임 회장님들이 쌓은 기반을 토대로 미주동창회의 미래 30년에 대한 새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시대정신으로 ‘집단지성(Group intelligence)’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여러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중점 사업은.

“저는 역대 미주동창회장 중 가장 젊은 기수인 63학번으로서, 좀 더 젊고 역동적이며 지속 발전 가능한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70~00학번대 동문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평의원회의와 동시에 관악연대(관악캠퍼스 출신 미주 동문들의 모임) 등 젊은 동문조직의 동창회 참여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버드대동창회 등과 교류 추진”

또 각 지부 사이의 횡적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지부동창회 운영 수준을 상향 표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평의원회의 기간 동안 지역회장단 회의를 추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한편 미주동창회와 하버드대 등 미국 명문대학 동창회의 교류를 추진해 모교의 위상을 알리고 친목을 도모하며, 그들이 가진 멘토링 사업 및 고용알선 사업의 노하우를 배워 동문사회에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이밖에 미국 대학이나 연구소, 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동문과 전공 분야가 같은 모교 재학생을 연결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추진해, 여름방학 또는 학기 중 해외진학에 대한 상담 및 알선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주 동문들이 소장한 전문분야의 학술지를 모교 도서관에 기증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각 지부동창회, 평의원, 일반회원 등 모든 그룹이 주인 의식을 갖고 노력할 때 미주동창회의 그룹IQ는 한층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곧 모든 미주 동문의 발전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회 林光洙회장(左)이 미주동창회 金殷宗회장에게 공로패 수여



林光洙회장(左)이 미주동창회 成周慶사무총장에게 공로패 수여



미주동창회 金殷宗회장(右)이 朴平一감사에게 공로패 전달

회보 편집위원, 李相玳(조경80-84)섭외국장, 李京熙(독문83-87)사업국장과 모교 발전기금 미주재단 李萬澤(의학52-58)이사장, 뉴잉글랜드지부 金殷漢(의학60-66)이사장, 뉴욕지부 郭先燮(섬유공학61-69)이사장, 워싱턴 DC지부 威恩璇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참전했던 林光洙회장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오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념공원을 둘러보며 과거를 회고했다. 이어 회회장은 공원 가운데 조성된 참전용사 조각상 앞에 손수 헌화하고 묵념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전몰한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미주동창회는 같은 날 오후 메릴랜드주 피비 다이 골프클럽에서 본회 孔大植·李炯均부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평의원 및 워싱턴동문 친선 겸 林光洙총동창회장 순회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에서 諸永惠(의류71-75)동문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孔順玉(간호66-70)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載)

林光洙회장,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헌화

한편 6월 23일 오전 본회 林光洙회장과 孔大植·李炯均부회장은 비공식 일정으로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했다. 6·25전쟁 당시 미군 통역관으로



林光洙회장(中) 등 본회 회장단이 폭우를 무릅쓰고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다.

미주동문 화합 위한 축제의 장 펼쳐

총동창회 사업 소개에 박수갈채로 호응

(3면에 이어)

68)회장, 시카고지부 韓義一(화학공학62-66)회장, 남가주지부 金相燦(지질과학66-72)회장, UCLA 치대 朴魯禧(치의학62-68)학장, 워싱턴대 河龍出(외교67-71)석좌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회회장은 미주동창회에 격려금 3천달러를 전달하기도 했다. 미주동창회는 평의원회의에 앞선 21일 버지니아주 타이슨스코너 소재 우레옥에서 1백여 명의 동문

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방문단 및 평의원 환영 전야제를 개최했다.

전야제서 공로패 전달

金殷宗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총동창회 林光洙회장님과 방문단, 여러 평의원 가족과 동문 여러분의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많은 의견과 함께 활발한 토론으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吳仁煥차기 회장은 “특별히 서울에서 왕림해 주신 林光洙회장님을 비롯해 미주동창회 초대 朴允洙회장님과 여러 전임 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金殷宗회장이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미주동창회 金建鎭(영문62-66)회보 상임고문, 金載英(축산62-66)·朴平一감사, 金炳淵(응용수학68-72)IT개발위원장, 趙東峻(의학57-64)동창

뉴욕서 林光洙회장 환영회 열어

潘基文 UN사무총장에 건축백서 전달



앞줄 뉴욕지부 골든클럽 李俊行회장, 潘基文 UN사무총장, 본회 林光洙회장, 뉴욕지부 金昌洙회장, 金塾 駐UN대사

뉴욕지부동창회(회장 金昌洙)는 지난 6월 25일 뉴욕 플러싱 소재 대동연회장에서 林光洙회장 뉴욕 방문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 林光洙회장과 孔大植부회장, 뉴욕지부 李俊行(섬유공학48-54)골든클럽 회장, 郭先燮이사장, 金昌洙회장 등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특히 주빈인 林光洙회장을 환영하기 위해 潘基文(외교63-70)UN사무총장, 金塾(사회70-77)駐UN대사, 孫世周(불어교육73-81)駐뉴욕총영사가 행사장을 찾아 회회장을 비롯한 동문들로 부터 큰 환대를 받았다. 회회장은 세 동문에게 본회가 발행한 장

학빌딩 건축백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金昌洙회장은 환영사에서 “林光洙회장님은 동창회장을 맡으신 후 모교와 동창회를 사랑하는 선공후사의 봉사정신으로 국내외 동문들에게 서울대인의 자긍심을 심어주셨다”며 “앞으로 모교가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총동창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뉴욕의 동문들 또한 더욱 분발하고 힘써하겠다”고 전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 경제와 문화의 수도이자 국제 금융의 중심인 뉴욕에서 동문 여러분이 마련해 주신 성대한



林光洙회장(右)이 潘基文 UN사무총장에게 장학빌딩 건축백서를 전달했다.

환영회에 참석하게 돼 참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성공을 거둔 뉴욕지부 동문 여러분은 총동창회의 자랑이며 동문사회의 발전을 이끌 역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이 즐겁고 행복한 날을 맞이한 서울대인 모두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더 큰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自重自愛의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고 말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潘基文 UN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林光洙회장님은 평소 존경하는 모교의 대선배이자 고향 대선배”라고 전한 뒤 “총동창회장을 맡으신 이래 12년 동안 모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회장과 특별하



林光洙회장(左)이 金塾 駐UN대사에게 장학빌딩 건축백서를 전달했다.

인연을 언급해 동문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어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삼위일체’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바로 재학생 자신들의 노력, 교수진 여러분의 교과과정 및 연구 강화 노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문 여러분의 강력한 후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林光洙회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미주 동문들의 보다 적극적인 후원체제 확립과 후원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潘동문은 이어 지난 6년여 동안 UN사무총장으로 봉직하며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UN사무총장은 분쟁 수습, 난민 구제, 빈곤 및 질병 퇴치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인적·물적 재원을 모아 UN평화유지군을 투입하



林光洙회장(右)이 孫世周 駐뉴욕총영사에게 장학빌딩 건축백서를 전달했다.

거나 식량 및 의약품을 지원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힌 후 “우리는 평소 ‘세계화’에 대해 자주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해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한 뒤 “이러한 글로벌 마인드를 지향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지성의 선봉인 서울대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교 동문들의 사회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역설했다.

이날 동문들은 풍성한 만찬과 함께 정담을 나누며 흥겹고 유쾌한 친교의 시간을 만끽했다.



노년에 노화지수 낮추기에 도움되는 일곱 가지 수칙을 정리해 놓은 ‘7-Up(세븐업)’ 수칙이 화제다.

△클린 업(Clean Up) : 청결을 유지하라. 평소 세면, 양치, 먼도, 목욕 등을 꼬박꼬박 해서 몸을 청결하게 하고 집안 청소와 환기도 빼먹지 않도록 한다. 주기적으로 대청소를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내다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감춰 두었다가 유산(?)으로 남길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선물하면 집안도 깔끔해지고 인심도 얻게 되니 일석이조.

△드레스 업(Dress Up) :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단정하게 입어라. 젊어서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얼굴에서 빛이 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옷의 날개 효과는 중요해진다. 외출할 때는 되도록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도록 한다.

노화지수 낮추는 ‘세븐업’

△셧 업(Shut Up) : 말수를 줄이고 듣기를 많이 해라. 말을 하다 보면 긴 훈계처럼 되기 쉽다.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잔소리라 생각하고 귀찮아 할 수도 있다. 말하기보다는 많이 들어 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려고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주거나 짧은 말로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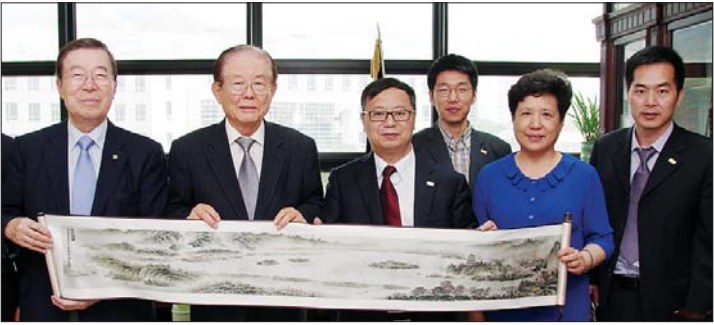
△쇼 업(Show Up) : 모임이 있으면 최대한 참석하도록 한다. 집안에만 있으면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다. 가족행사, 동창회, 향우회, 직장 OB모임, 댁든지 초청이 오는 곳은 최대한 참석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좋다.

△치어 업(Cheer Up) :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라. 나이가 들면 그만큼의 지혜가 쌓이는 법. 여기에 활달함과 유머감각을 더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환영받게 된다.

△페이 업(Pay Up) : 최소한 자기 몫은 지불하라. 옛말에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받는다’는 말이 있다. 지불 능력은 물론 자기 몫을 지불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어디서나 부담 없이 초청하려 할 것이다.

△기브 업(Give Up) : 안 되는 일은 미련을 두지 말고 포기하라.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다. 기괴인물이 되지 않으려면 너무 많은 걱정을 끌어안고 있지 말아야 한다. 살다 보면 걱정거리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정말 걱정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걱정이 습관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객관적으로 보면,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걱정거리도 많다. 가볍게 살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 건강박사 유태종의 9988 건강습관(리스크컬)에서 —



劉鐘海부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SONG Yonghua부총장, 김상규 통역관, ZHANG Meifeng총장 비서장, LOU Hualiang총장 부비서장

중국 절강대 관계자 본회 방문

양교 및 동창회 교류 방안 논의

지난 6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회 사무처에서 본회 임원진과 중국 절강대 관계자가 양교 간 동창회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劉鐘海부회장, 절강대 SONG Yonghua부총장, ZHANG Meifeng총장 비서장, LOU Hualiang총장 부비서장이 함께 했다.

동창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한 ZHANG Meifeng

총장 비서장은 “6월 22일 절강대 출신의 한국인 동창회 설립을 위해 귀국했다”며 “절강대동창회는 전 세계 1백40여 개의 동창회를 설립한 가운데 대부분 절강대 출신 중국인을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한국에서는 절강대 출신 한국인 5천여 명을 중심으로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강대동창회는 중국 정부에서 평가한 등급에서 칭화대와 더불어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10월 최종 사업평가 거쳐 발표회 개최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6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예뻐아름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모교 李基俊 前총장과 任廷基 기획부총장을 비롯해 본회 孔大植·辛鉉雄부회장, 한동대 崔道成부총장, 본보 尹在錫논설위원이 참석했으며 모교 평의원회 朴鍾根의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 李在影학상처장, 林哲一교육부처장, 발전기금 金炯周상임

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林哲一교육부처장의 사업별 추진 경과 및 계획 발표로 시작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교수 강의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총 사업비 6억원이 지원되는 교육혁신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사업 공모와 예비 선정을 거쳐 총 8개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해 12월에 1차 사업비(60%)와 올해 4월에 2차 사업비(20%)를 차등 지급했으며, 오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서울대총동창회에 대해 자세히 알고 향후 양교 간 교류 방안을 도모하고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孫一根상임부회장은 환영의 인사말에서 “33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서울대총동창회는 대학을 돕고 동문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별도 법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장학발당 수익금을 바탕으로 재학생 장학금과 교수 연구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교와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상승작용을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劉鐘海부회장은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 건립한 장학발당은 서울대 동문들의 애교심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조언하는 한편 향후 양교 간 교류를 약속하는 등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절강대 관계자들은 당일 모교를 방문해 학술교류협정 연장과 학생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10월 사업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난 4월 지원된 2차 사업비를 제외한 3억원의 지원금을 통해 16개 학과(부) 단위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선정, 프로그램별 최고 1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중심 혁신 프로그램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춰 하드웨어 구축 비용이 단위 사업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수 강의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은 올해 강의개발 수를 줄이는 반면 교수 강의개발비를 증액해 학생 호응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평생교육원은 각각 모교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교수 지원비는 1천5백만원으로 책정하고 2012년도 선정 교수들에게는 오는 10월 사업평가에 따라 추가 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2013학년도 사업 공모로 접수된 9강좌를 최종 평가한 후 2학기 촬영을 통해 내년 1학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골프대회 공대팀 우승 인도네시아지부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裴度運)는 지난 5월 9일 자카르타 근교 구능글리스CC에서 40여 명

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체전 우승은 공과대학팀, 준우승은 농과대학팀, 3위는 문리과대학팀이 차지했으며, 李院濟(임학64-69)동문이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해 식사비 일체를 협

찬했다.

동창회에는 현재 농대(52명), 공대(32명), 상대(23명), 문리대(22명), 사대(2명), 음대(2명) 등 총 1백3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골프대회와 송년모임을 개최한다. (香)

만평

李元馥



신임 회장에 李在述동문 선임

경대원동창회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李哲雨)는 지난 6월 4일 서울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6층 중식당 팬차이나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李哲雨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동창회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동안 애써 주신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중책을 맡는 신임 동창회장님을

통해 동창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모교 경영대 金炳道(경영78-82)학장은 축사에서 “모교 및 동문 각자의 발전을 위해 동창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결산 및 2013년 예산 심의를 의결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李在述(대학원82-86)총괄대표를 선임했다. (9면 인터뷰 참조)



金光潤·張萬基동문, 金英大명예회장, 李在述회장, 李哲雨 前회장, 金炳道학장, 金秉權·高永一동문

새 회장에 李完永동문 선출

한대원동창회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李萬儀)는 지난 5월 31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金利煥·金秉麟·郭決鎬명예회장을 비롯해 모교 吳然天총장, 崔莫重환경대학원장 등 9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李完永(한대원80-83 국회의

원)동문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朴良浩·裴成一·安啓東·全儀燦·曹白一동문, 감사에 金希炳·成鍾祥동문을 선임했다. (9면 인터뷰 참조)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를 통해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모교 환경대학원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것이 동창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李회장이 李萬儀 前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정대학원 54주년 홈커밍데이

행대원동창회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金基炳)는 지난 6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행정대학원 설립 54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28회 동기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 모교 吳然天총장, 공정거래위원회 盧大來위원장, 안전행정부 劉正福장관, 장애인고용공단 李城

圭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발전기금 전달식과 새 정부에서 장·차관에 임명된 동문에 대한 축하패 수여식이 있었다.

2부 만찬에서 탈북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과 여성 1백30인조 오케스트라인 K.W.W.O (Korea Women's Wind Orchestra)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금오도서 정기모임

여수지부동창회

여수지부동창회(회장 金宣圭)는 지난 6월 9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비렁길)에서 등산을 겸한 정기모임을 가졌다.

동문과 가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야항→금오도 함구미→미역널방→송광사 절터→신선대→두포에 이르는 코스를 걸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경에 흠뻑 빠져 사진을 찍고 동문 간의 정담도 나누며 준비해간 수육과 회를 맛봤다.

상산高서 친목 다져

전북지부동창회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6월 17일 전주 상산고(이사장 洪性大) 교정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상산고에 재직 중인 동문 16명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金恩喆(기약82졸)동문이 金潤美(기약80-84)동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였다.

또 黃甲度(국약85-89)동문의 관소리 공연에 이어 丁乙三(의학60-66)동문이 특강을 했으며, 탈북여성 출신인 북한전통음식문화

연구원 이애란 원장의 북한전통음식 나눔행사가 있었다.

간담회에서 임명장 수여

ACAD동창회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弼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논현동 동창회 사무실에서 제1회 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李汪烈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李弼雨회장이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무보고를 통해 올해 진행할 국정포럼, 해외연수, ‘국가정책의 밤’ 행사, 골프·등산·바둑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載)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19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6월 1~30일 3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5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6명(본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 6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9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鄭興寶(수의학75-81)동문

: ‘대학·자유·지성’·‘서울대’ 창간호, ‘마로니에’, 기초과정수강편람(1975년), 대학국어, 대학작문 등 ▲金敬植(전자계산78-82)동문: 컴퓨터공학과 소개 서적(1991년), 초대 동창회 기록 ▲백운국(고고미술87-94)동문: 경성제국대학법문학회 ‘법학논찬’ 1권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임광수)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E-mail: webmaster@snu.ac.kr
주 소: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4-2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임성용 과장 핸드폰: 010-3945-392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02-880-8819 팩스: 02-884-7149 E-mail: archives@snu.ac.kr
주 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광수·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제1회 친선 골프 성황
약대동창회

약학대학동창회(회장 千文字)는 지난 5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88CC에서 88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동창회장배 동문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千文字회장은 대회사에서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해 준 많은 동문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수고해 준 운영위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 대회의 성공적인 개

최를 계기로 더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 우승 30회 동기회, 준우승 18회 동기회, 3위 42회 동기회, 최다참가상 28회 동기회

△개인전 : 우승 李炯圭(약학74-78)동문, 준우승 李圭憲(약학74-78)동문, 3위 崔景明(제약72-76)동문, 메달리스트 韓午錫(제약72-76)동문, 통기스트 李秉洙(제약84-88)·具滋英(제약86-90)동문, 니어리스트 元喜睦(약학73-77)·李洪子(약학64졸)동문



골프대회서 친목 도모
대구·경북지부동창회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崔敬鎮)는 지난 5월 26일 경북 청도군 그레이스CC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동창회 골프모임인 관악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해 가을에 열린 회장배 추계대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공식대회이다.

崔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신정부 출범과 북한의 핵위협, 개성공단 폐쇄 등 일련의 사태로 공직에 있는 동문들이 거의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대회가 열렸지만 많은 동문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가 됐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부 관악회는 1980

년대 초 결성돼 20년 가까이 정기모임을 개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나 1997년 IMF체제에 따른 경제난으로 잠정 중단됐다.

최근 수년간 관악회 부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난해 기금의 이관 절차를 마무리지고 운영진을 재선임한 후 활동을 재개했다.

관악회는 흑한기와 흑서기를 제외하고 매월 1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는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李載亨(기계설계76-80 삼익HDS 사장)동문이 경기위원장으로 모임을 주관하고 있다.

동창회에는 총 1천7백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매년 초 신년교례회와 봄·가을 동문가족 걷기대회, 골프대회, 산악회 등의 행사와 모임도 활기를 띠고 있다.



제2회 골프대회 개최
IFP동창회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동창회(회장 金相瀾)는 지난 6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한성CC에서 1기에서 8기까지 3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우승 7기, 준우승 8기, 3위 1기 △메달리스트 구본훈(8기) △개인우승 황정환(1기) △다과상 권기대(7기) △다보기상 이종남(7기) △통기스트 김숙경(8기) △니어리스트 최홍석(7기) △행운상 김진영(2기) △단합상 7기 △베스트드레서상 오현정(8기) △고군분투상 박수찬(5기)

친선 등산·골프대회
의대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晔)는 지난 5월 26일 서울 도봉산에서 4백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친선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들은 도봉산 입구에서 우이암까지 이어지는 코스의 산행을 즐긴 뒤 음식점 옛골토성에서 바비큐와 국수 등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이천시 뉴스프링빌CC에서 1백49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제11회 골프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를 위해 姜信浩 명예회장이 음료수, 李吉女 명예회장이 머그컵세트, 朴容晔회장이 치약세트를 협찬했다.

친선 골프대회서 친목
치과대학동창회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朴健培)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한화플라자CC에서 11회 선배부터 59회 후배까지 1백2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朴健培회장은 인사말에서 “골프를 통해 많은 동문들이 소통·화합·나눔을 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쁘고, 이렇게 좋은 기운이 동창회를 더 큰 발전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90명 모여 골프 라운드
AFB동창회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梁好錫)는 지난 6월 17일

경기도 화성시 리베라CC에서 1기부터 13기까지 9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4회 친선골프 열어
FIP동창회

미래융합기술과정동창회(회장 姜英植)는 지난 6월 2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CC에서 제4회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총 15개 팀이 경기를 치른 이날 대회에서 명지정밀 申重九(4기)대표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인포뱅크 金浩潁(5기)상무가 출신원의 기록을 세웠다.

10회 골프대회 가져
GLP동창회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趙鏞根)는 지난 6월 3일 경기도 용인시 코리아CC에서 1백4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친선 골프대회를 열었다.

자연대 학장배 골프
SPARC동창회

과학기술혁신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金鍾顯)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사이드CC에서 제7회 자연과학대학 학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신임 成映穆회장 취임
ASP동창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育洙)는 최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李育洙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조선호텔 成映穆(ASP 12기)대표를 선임했다.

이어 2013년 행사 계획 등 회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載)

동문작품
지상 전시회

吳龍吉作

산, 화산지에 수목담채, 136×107cm, 2009

〈작가약력〉

▲1972 모교 회화과 졸업
▲1975 모교 대학원 졸업
▲국전 문공부 장관상, 동아미술제 등
아미미술상, 제1회 선미술상, 월전미

술상, 의재 허백련 예술상 창작상, 이당 미술상, 2010 마니프 대상
▲현대미술초대전, 한국전통 산수화전, 서울미술대전, 마니프 서울 '98, Today's Korean painting, 2007 한국화전
▲現이화여대 명예교수

황당한 주유소 사건

한 여성이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남자에게 호감을 갖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각인시키려고 매일 주유소를 찾아가 휘발유 1L씩을 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연쇄 방화사건이 나서 경찰들이 조사하러 다니는데 그 주유소 남자가 경찰에게 그 여자를 1차 용의자로 지목한 사건.

키스 요법

열차 칸막이밖에 젊은 남녀 한 쌍과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앉아 있다. 여자가 좀 불편한 기색이기에 남자친구가 “왜 그래?” 하고 묻는다. “나 골치 아파.” 그러자 사내가 여자의 이마에 키스하고는 “좀 괜찮아진 거야?”라고 묻는다. 그렇단다. “어디 땀 데 아픈 데 없어?” 여자는 “여기” 하며 입술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자 입술에 키스해준다. “이제 나아졌어?” “한결 좋아졌어.” “또 어디 불편한 데 없어?” 여자는 목을 가리킨다. 사내는 여자의 목에 키스한다. 내놓고 그렇게 민망한 짓을 하는 걸 보고 화가 난 노인이 사내에게 묻는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 치질도 고쳐주나?”

할 말 없지?

남자: 20분 동안이나 아무 말이 없군요?
여자: 글썽요, 할 말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남자: 할 말이 없을 땐 아무 말도 안 하냐요?
여자: 그래요.
남자: 좋습니다. 나하고 결혼합시다.

(독자제보 환영)

“정년퇴직 전에 결혼해야 효도” 자녀 결혼 직접 나서는 부모



전문경영인인 김훈(59·서초구) 씨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늘 싱글병글한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이었던 ‘딸의 결혼’이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현직에 있을 때 식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 김 씨 내외는 둘째의 결혼을 위해 서둘렀고, 다행히 인연을 찾아 퇴직 5개월 앞으로 날을 잡았다.

자녀의 결혼 시기는 늦어지고 정년 시기는 빨라지면서 부모들의 고민이 심각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결혼할 때의 부모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약 63세, 어머니가 약 59세인 것으로 집계됐

다. 자녀의 결혼 시기가 부모의 정년 시기와 맞물리거나 오히려 늦다는 이야기다.

노후 준비에, 자녀 결혼 비용(아들·딸 각각 7546만원, 5227만원)까지 마련하자니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여야 부담이 덜하다.

부모가 자녀 혼사를 서두르는 이유로는 한국 사회의 세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축의금은 일종의 품앗이에 비유된다. 뿌린 만큼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모가 현직에 있느냐 정년퇴직을 했느냐에 따라 그 회수율이나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결혼 당사자들은 늦어진 결혼 시기를 사회적인 풍조로 받아들여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부모는 현실적인 고민 앞에 애가 타고, 정년까지 코앞에 두고 있다면 불안감은 더욱 크다.

**결혼정보회사 찾는 부모 늘어
관심 없는 자녀 대신 부모가 나서
정년퇴직 전에 혼사 시키려 노력
자녀와 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배우자 찾기를 가능성 커 선택**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혼남녀 8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남녀 모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성을 만나지 못해서’(남녀 각각 44.5%, 39.8% 응답)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결혼정보회사 ‘가연썬’의 남지훈 회원상담부 이사는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배우자감은 분명히 있지만, 만날 기회는 결코 흔치 않다”고 말한다.

학업활동이나 직장생활 중에 만나게 되는 이성의 외모나 성격이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배우자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혼까지 이르지 못하고 연애 상대로 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부모들은 일찌감치 결혼정보회사를 찾는다. 과거에는 만혼기가 지난 자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중매인을 찾았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적령기의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을 갓 졸업한 자녀까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시키는 경우도 많다.

최정만(62·용산구) 씨도 얼마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며느리를 들였다. 그는 아들(28)이 대학을 마치자마자 결혼정보회사에 등

록을 시켰다.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다. 아이의 결혼은 아이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하고 싶었다”고 한다.

아들이 원하는 여성상과 최 씨 내외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 아가씨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겠는가, 망설임 없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정보의 신뢰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아들도 처음에는 연애결혼을 하겠다며 강하게 거부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을 마치고 오더니 되레 적극적이 되더라. 이상형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고 했다”며 웃었다.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능력이 될 때 장가를 보내고 싶었다. 서두르지 말자고는 했지만 사실 조급했다. 그런데 좋은 며느릿감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 무척 기뻐다. 6개월도 채 안 돼서 날을 잡고 식을 올렸다” 그는 딸도 학교를 마치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인연을 찾아줄 것이라며,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아름다운 인연, 가연
가연결혼정보(주)
02-500-5522

가연, 결혼정보분야 2년 연속 1위

가연결혼정보(주)는 국내 최대 규모와 시설을 갖춘 결혼정보회사다. 결혼정보분야에서 2년 연속으로 1위(*2011, 2012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서울 테헤란로 중심지에 자리한 단일 사옥은 17층 전관이 결혼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어 만남뿐만 아니라 결혼에 필요한 것을 모두 준비할 수 있는, 결혼의 메카라 할 수 있다.

가연결혼정보의 기업화는 불과 6

년 만에 이루어졌다. 창립 이후 가연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133%에 이른다. 전년 대비 회원 수도 매년 94%씩 상승했다. 결혼정보회사의 성장률로는 기록적인 수치라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가연결혼정보의 조영섭 전무이사는 가연의 성장 원동력에 대해 “사실 그동안의 결혼정보 서비스는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회원들의 불만이 끊일 수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가연은 결혼정보 서비스를 체계화하려 노력했다. 회원이 안심하고 정보를 맡길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회원에게 맞는 상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회원을 위한 노력이 지금의 가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랭키닷컴-랭키순위권?
최근 12주간의 랭키 톱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의 회원 만족 경영

결혼정보 시장의 회원 불만	구분	가연결혼정보 구축 방향
복잡하고 불리한 환불 규정	서비스보증 및 환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100%준수
회원 기재 정보에 의존 신원인증 외부 대주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서류 인증 내부 신원인증 부서 구성 운용
주민등록번호 사용 신원인증 대행업체 병행 관리	개인정보 관리	주민등록번호 미사용 내부 신원인증 부서 직접 관리
회원 간 전화번호 유출	회원 안전 보장	안심번호(가상번호) 서비스 발송
단순 조건 위주 선정	회원 매칭 시스템	회원 당 두 명의 매니저 관리 성격, 감성까지 고려한 선정

수준 높은 회원 확보로 인정받아

가연결혼정보(주)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2010 한국경제 소비자 대상(주최: 한국경제신문), 2011 코리아 웹어워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고대상(주최: 한국일보), 2012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주최: 한국경제신문), 2년 연속(2011, 2012) 대한민국 중소기업혁신대상(주관: 지식경제부), 3년 연속(2011~2013)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결혼정보부문(주관: 한국소비자안전학회), 2013년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주최: 포춘코리아), 2013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주최: 포브스코리아) 등 2010년부터 올해까지 수상한 내역만 11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포털 ‘다음’에서 집계하는 디렉토리 인기 목록에서 결혼정보회사분야 1위를 석권(2013년 4월 기준)하기도 했다.

가연이 이처럼 각종 미디어의 소비자 설문조사,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그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결혼정보업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가연은 회원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수준 높은 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가연은 차별화된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수준 높은 회원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 성과로, 국내 전문직단체,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 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위 530여 개의 단체와 기업이 가연과 제휴를 맺고 있다. 가연은 공식 제휴를 통해 미혼인 임직원, 가족의 결혼 지원 서비스를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연결혼정보(문의: 02-500-5522)

농생대동창회 李賢秀회장
(리빙스턴건설 사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는 지난 5월 11일 정기총회에서 리빙스턴건설 李賢秀(농화학60-64)사장을 제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李회장은 “고민했지만 믿고 선임해주신 선후배 동문님들의 기대와 사랑에 수락했다”며 “임기 후 발전된 동창회를 인계해주겠다는 책임감과 욕심이 생긴다”고 소감을 밝혔다.

－ 취임 이후 근황은.

“지난 6월 말까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농업개발 사업 중 틈틈이 동창회 운영에 관해 구체적인 구상을 했습니다. 향후 동창회 임원진을 구성해 본격적인 동창회 업무에 나서려 합니다.”

－ 동창회 행사를 소개해 주신다면.

“전체 회원 수 3만여 명, 전체 예산은 연 2억 원 정도로 동창회비 수입이 과거보다 줄었지만 동문 후원금 등을 활용해 알차게 운영 중입니다. 주요 행사는 상록의 날,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시상,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 등이며 장학사업으로 학부생, 지역 농고생 등 연간 90여 명에게 1억6천만원



크게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 하반기 주요 일정은.

“7월 중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과 경남 지역 동문 기업 탐방이 있을 예정이며, 8월 말 상록문화재단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상록문화재단 이사회와 동창회 상임부회장회의를 열 것입니다.”

“은퇴자 기술·경험 저개발국에 전수”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문 대부분이 기숙사 중심의 학창생활을 지내 선후배 간 정이 두터우므로 장학사업도

－ 재임 중 역점사업은.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모교와 협력해 아프리카 우간다에 농과대학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은퇴한 전문인 회원들의 기술과 경험을 저개발국의 수요자와 연결시켜 줄 인적 네트워크 사업도 전개하려 합니다.”

－ ‘리빙스턴건설(우간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유일하게 개인으로 정부 정식 승인을 받아 우간다에서 카사바 농업 및 가공 사업을 추진하는 현지 법인입니다. 약 3천ha의 토지를 개간 준비 중이며,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농장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충남 서산 출신의 李회장은 모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양제넥스 부사장,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 이사, 셀트리온 신규사업부문 사장 등을 거쳐 현재 리빙스턴건설(우간다) 사장, 사토리우스 코리아바이오텍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秀)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환대원동창회 李完永회장
(국회의원)

환경대학원동창회는 지난 5월 31일 정기총회에서 李完永(환대원80-83)국회의원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李회장은 “4천여 동문을 대표하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창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동창회 주요 사업은.

“환경대학원 석·박사 수료 또는 졸업생과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SGS) 수료자 등 총 3천6백58명의 회원이 있으며 주로 교수와 연구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후배들을 위한 지원으로 9명의 대학원 후배들에게



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동창회는 자발적인 참여조직이기 때문에 유익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교 환경대학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교에서 뭘 해주길 바라기 전에 동문들이 먼저 뭘 할 것인가에 대해 생



경대원동창회 李在述회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동문 대상 조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동창회 활성화 계획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저조했던 1980년대 이후 학번 동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40~50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직능별 소모임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동문들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동창회의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동문 대부분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

“10월 환대원 40주년 기념행사 추진”

총 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에서도 별도회계로 해 매학기 3명에게 연간 1천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0월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매년 10월에 동문과 가족을 대상으로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교 환경대학원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삶의 지식공동체, 서울대 환경대학원(Sustainable Life, Sustainable City)’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10월 24~25일 양일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 임기 중 추진할 중점 사안은.

“동창회의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동창회장직을 수락한 것도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데 중요한 매체나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많은 자리를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재학생과 학교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국회에서도 환경 관련 사안을 다루는지.

“‘소음·진동관리법’, ‘먹는 물 관리법’ 등을 대표발의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환경전문가 2백여 명의 발기인과 함께 환경복지구현,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3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미래환경연구포럼’을 창립해 대표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李회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대구지방노동청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제19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邊)

“40~50대 동문들의 참여 적극 유도”

를 담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동창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회원은 어느 정도인지.

“1967년 이후 45년간 모교 경영학 석·박사 과정과 글로벌 MBA, SNU MBA, Executive MBA 등을 통해 모두 4천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으며 주로 기업과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 각자 몸담은 분야에서 업무상 자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과 언론기관, 재계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 간의 폭넓은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주요 일정은.

“연말 송년회인 경영인의 밤 행사를 비롯해 등산·골프대회 등 각종 친목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들입니다. 모교와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긴밀한 유대감과 공고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가 먼저 미력이나마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 법인은 세계 최고의 회계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의 한국 회원사로서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경영컨설팅 등 4가지 영역과 세부 분야에서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李회장은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감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邊)

학교는 놀라운 발전! 병원은 눈부신 성과! **가천길재단**

가천대학교

글로벌 미국 하와이에 가천하와이교육원 개관
특성화 글로벌경영학 트랙 · 경영전문가 양성
메디컬파워 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운영

길 병원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 지역암센터 선정
국내최초 권역외상센터 선정 · 닥터헬기 운항
1등급 3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 생존률

국내최초 가천대 길병원 닥터헬기



가천대학교

가천대 길병원

가천길재단

교육분야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 메디컬캠퍼스), 신명여자고등학교 / **의료분야**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 남동길병원 산업의학연구소, 철원길병원, 양평길병원, 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뇌과학연구소, 이길여 암 당뇨연구원 / **언론분야** 경인일보 / **사회 문화분야** 가천문화재단 (가천박물관) / **봉사분야**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화제의 동문

제주 초콜릿 박물관 朱 鎮 潤 회장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10대 초콜릿 박물관에 선정된 제주도 초콜릿박물관 朱鎮潤(항공공학66-70)회장을 만났다. 朱회장은 현재 미국의 나이아가라에 월드 초콜릿 헤리티지 박물관 설립을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존의 박물관이라 하면 유물 혹은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초콜릿박물관은 처음 구상부터 남다른 박물관이었다. 어린이를 좋아하는 朱회장 부부는 박물관의 주 대상을 어린이로 꼽았다. “제주에 오면 어른들은 골프, 낚시, 생선 회 등을 즐기면서 신이 나서 좋아하지만 어린이들은 오히려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초콜릿박물관은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초콜릿을 주제로 콘텐츠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머릿속에서 과거로, 또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도 정신여행을 할 수 있는 메디테이너(Meditainer)를 지향하는 박물관이다.

나이아가라 폭포에도 박물관

朱회장은 지난 2월 15일 국내최초로 단 국내에서 초콜릿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

다. “원래 대우실업을 다니다 1970년대 말에 독립해 주식회사 아가방을 창업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사업아이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콜릿이었습니다. 아가방을 창업·경영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게 돼 먼 나라를 다니면서 공부한 것이 카카오와 초콜릿입니다. 이왕 하는 것 학문적으로도 제대로 들어가 보자고 생각해 생화학, 육종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유지공학 등 부딪치는 대로 연구하다 보니 어쩌다 우리나라 최초로 초콜릿 박사도 하게 됐습니다.”

언뜻 아이들 과자로 치부해버리기 쉽지만 초콜릿은 이미 대부분 선진국 슈퍼마켓의 식품 중 초콜릿이 들어간 것이 50%에 달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또한 심장에 좋은 항산화제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재료도 초콜릿이다. 인간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점점 더 넓은 연령층에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 세계의 초콜릿 업계에서는 카카오 원료에서부터 지역과 품종을 특정해 최상의 향미를 가진 싱글 오리진 빈투바(Single Origin Bean-to-Bar) 초콜릿을 만드는 젊은 벤처들이 많습니다.” 朱회장도 이미 2007년부터 이 분야에 들어서서 젊은 인적

세계 10대 초콜릿 박물관 위상 굳건히
“미국에 기호식품 전문대학 설립 꿈꿔”

자원과 기계들을 확충해 세계적인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부인 韓禮錫(AIP 43기)관장과 함께 박물관을 이끌고 있는 朱회장은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 한국해외개척자 야외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이름의 고향’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작업이다. “한국의 끝판에 ‘한국의 끝은 세계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향을 떠난 분들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장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朱회장의 초콜릿박물관은 세계여행정보

커뮤니티인 ‘버추얼투어리스트닷컴’ 선정 세계 10대 초콜릿박물관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는 정부 지원이나 보조 없이도 홀로서기로 이뤄낸 성과이다.

朱회장은 초콜릿으로 부러운 나라들이 많으며 벨기에, 스위스 등을 꼽았다. “기업으로는 프랑스의 미셸 크루이젤이나 펜스테이트의 허쉬스, 샌프란시스코의 지라텔리나 사펜버거 등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노력해 스스로 초콜릿의 롤 모델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콜릿 연구로 박사학위 받아

초콜릿 전문가 朱회장에게 좋은 초콜릿의 조건을 물어보았다. “카카오 원산지가 분명한 것, 카카오 빈이 초콜릿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각 공정마다 정성 들여 선별할 것, 설탕이 적게 들어갈 것 등의 조건을 갖춘 초콜릿이 좋은 초콜릿입니다.”

아가방의 경영자에서 물러난 후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朱회장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감행했다. 그의 도전의 바탕에는 창조적 생각으로 죽는 날까지 늘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크리에이티브한 삶을 사는 朱회장의 향후 계획을 물어보았다. “지금은 나이아가라 박물관, 마라도 프로젝트, 에콰도르의 카카오 원종 보호농장에 집중하고 있고 이후엔 미국 내에 기호식품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데 남은 생을 바칠 생각입니다.” (邊)

대한남자간호사회 金 長 彦 회장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남자간호사는 전체 간호사의 2.1%인 6천2백2명으로 이 가운데 66% 정도가 지난 5년 사이에 배출돼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국가고시 남자 합격자는 1천여 명, 전국 간호대 재학 남학생 수는 8천여 명으로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 추이가 예상된다. 금남의 영역이 옛말이 된 오늘날 남자간호사들의 위상 제고와 비전 제시를 위해 지난 4월 20일 대한남자간호사회가 공식 출범하고 모교 어린이병원 소아수술실 金長彦(간호79-84)수간호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金회장은 1984년 모교 병원 최초의 남자간호사가 되어 1994년 수간호사 시험에 합격, 현재 어린이병원 수술실을 지키는 올해 30년차의 베테랑이다.

金회장은 “초대 회장으로서 토대를 닦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고민이 많다”며 “남자간호사들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여자와 남자가 합쳐진 간호사를 완성한다는 목적을 세웠고, 그를 위해 빠르게 증가하는 남자간호사들의 구심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창립 동기를 밝혔다.

수술실 매력에 빠진 30년 베테랑

2년의 임기 동안 金회장의 주요 목표 사업은 남자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는 남자간호사의 현역 군 복무 대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를 통해 대도시 간호사 쏠림 현

상을 해결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밀도 높은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자격증을 갖춘 남자간호사들을 공중보건간호사로 투입하게 되면 지방 공공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재정난과 인력난의 해소는 물론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에까지 향상된 수준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남자간호사 입장에서는 위생병으로서 접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현장의 응급상황을 통해 대처 능력을 키우고 의료기술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기관의 신입 교육 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1석4조의 대안입니다. 작년 9월 신경림 국회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남자간호사가 더욱 구체적으로 삶을 불이교자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기획 중입니다. 실제로 공공의료원 측에서도 ‘왜 진작 추진하지 않았느냐’며 크게 공감하고 찬성한 내용으로,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여론의 오히려 소지가 크기에 용어 선택에도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자간호사회는 그 외에도 남자간호사 관련 현황 분석 및 통계 정리, 학술·연구사업, 국제교류 방안 모색, 사회 봉사, 자체 보수교육 마련 등의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www.mannurse.or.kr)와 매체 인터뷰를 통한 홍보도 계속해 펼칠 예정이다.

국내 남자 나이팅게일 6천2백명의 수장
“임기내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에 주력”

or.kr)와 매체 인터뷰를 통한 홍보도 계속해 펼칠 예정이다.

“남이 안 하는 것을 한번 해 보자는 마음에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는 金회장은 당시에는 드물었던 남자간호사로서 여러 번 주목받아 왔다. 1979년 입학 당시만 해도 캠퍼스에 찾아와 기다리는 기자들을 피해 다니기 바빴다면 金회장은 남자간호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원인을 취업난이라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서 찾았다.

“이제는 남자간호사가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니지요. 지금은 간호사 기숙사가 남녀 공용이지만 그 당시에는 연감생심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병원 목공실에서 생활하며 등

화제의 동문

하교했던 남학생도 있었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재학시절 그룹사운드 활동도

오랜 간호사 생활 동안 다른 어떤 부서보다 수술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해 온 金회장에 수술실의 매력을 묻자 ‘조화’라고 답했다.

“수술실의 매력에 빠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간호사로서 어떤 수술에 무엇이 필요한지 머릿속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수술할 때 손발이 맞는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지요. 이것이 환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金회장이 처음 간호사의 길을 선택할 때 반대했던 형 金張容(토목공학75-79)동문을 비롯한 가족들도 이제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한편 금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준다.

모교 재학시절 고교 후배들과 그룹사운드(D.D.R)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즐겼던 金회장은 현재 모교 병원 수간호사 합창단에서도 특기를 살려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후배 재학생들의 진로 방향 제시를 위한 특강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金회장은 동문들에게 “남자간호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테니 지켜봐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秀)

“정전체제 종식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동문록 찾아서

한국전쟁기념재단 金仁圭 이사장



대담 : 李東植(KBS 비즈니스 감사)논설위원

1953년 7월 27일 3년간 계속된 한국전쟁의 종단을 알리는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멈춰있다. 이처럼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한국전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해보는 다양한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그 중심에는 평

화음악회, DMZ 평화대장정, 해군순양함 참전국 방문, 미술전 등을 기획한 한국전쟁 기념재단이 자리하고 있다.

본보는 행사 준비에 한창인 6월 19일 金仁圭(정치69-73)이사장을 만나 재단의 역할과 ‘정전 60주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 재단이 설립된 배경과 역할은.

“2010년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60년 전에 이름도 잘 모르는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한 참전용사들에게 이제는 우리도 갚아주자’라는 취지에서 2010년 6월 재단을 창립하게 됐습니다. 1953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한 극빈국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만큼 전쟁에 참전해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은하는 것이죠. 재단의 슬로건이 ‘We remember and share’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보은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자는 뜻입니다.”

－ 특별히 장학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교육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해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장학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도움을 준 21개국 중 그리스, 터키,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등 6개국의 참전용사 후손 2백40여 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총 14명에게 모교를 포함해 한국외대, 한양대 등 국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모교에도 유학생이 있다는 것인가요.

“네, 에티오피아에서 온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현재 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 올해가 정전 60주년으로 재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전 60주년의 의미가 남다르게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끝난 뒤 정전체제로 60년이 지난 사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우리 젊은 세대는 물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정전체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전쟁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불안한 체제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임을 대내외적으로 상기시키므로써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평화음악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한국전쟁 참전 21개국에서 연주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것인데, ‘60년 전 총을 들고 왔다면 이제는 악기를 들고 찾아와 다시 한 번 평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콘셉트로 기획했습니다. 참전용사 가족들 3백여 명이 방문하는 이번 평화음악회의 첫 공연은

・ 金이사장은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2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졸업하고 1973년 모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3년 KBS 공채 1기 기자로 입사한 이래 보도국 미주총국 뉴욕주재 특파원, 워싱턴총국 특파원, 보도국장, 정책기획국장, 특임본부장, 뉴미디어본부장, 이사를 거쳐 사장에 이르기까지 40년 가까이 KBS에서 활동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2000),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방송언론부문(2010), 제18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2011), 제23회 중앙언론문화상 방송부문(2011), 제40회 국제 에미상 공로상(2012), 은탑산업훈장(디지털방송 전환 유공 2013) 등을 수상했다.



‘평화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 추진

참전용사에 報恩...후손에 장학금 지원

우리 분단의 상징인 도라산역에서 정전협정 전날인 7월 26일 전야제 형식으로 개최되고, 그 뒤 30일 부산 UN기념공원에서 한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 음악회 외 ‘DMZ 평화대장정’ 등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평화음악회와 더불어 정부 공식행사로 지정된 DMZ 평화대장정은 정전체제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휴전선을 걷는 프로그램으로 임흥길휴전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전쟁기념관에서 정전 60주년 행사가 끝난 후 선발된 1백55명의 대학생들이 동해안에서부터 휴전선을 따라 전쟁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오는 8월 해군순양함과 함께 터키, 그리스, 태국을 차례로 방문해 직접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60년 전과 현재의 모습을 조망해보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KBS와 터키 국영방송국인 TRT 방송이 공동 제

작한 특집방송 ‘양키리학교의 추억’을 후원했습니다. 이 방송의 주인공은 터키 참전용사의 후손으로 재단 장학생 중 한 명입니다. 더불어 재단에서는 정전 60주년 사업의 하나로 지리산 빨치산들의 전향 문집인 ‘지리산 빨치산의 참회록’을 냈습니다.”

－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할 텐데.

“재원은 100% 민간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재단의 취지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장학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국의 현직 초·중·고 학생들 40여 명씩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던 것이 3년의 시간이 흐르며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대학교까지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BS 공채 1기 출신으로서 처음 사장을 맡아 기대도 많았는데, KBS사장 3년을 어떻게 평

가하실 수 있으신지요.

“시대가 다원화되면서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회로 종교, 이념, 연령 등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다룰 수 있느냐가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 또한 사장으로 있던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내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전쟁 60주년에는 국민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고자 과거 방송됐던 6·25전쟁 10부작을 리메이크해서 방송했고, ‘전우’라는 전쟁관련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했지요.”

－ 얼마 전 ‘드라마 스캔들’이란 책을 발간하셨지요. 드라마 제작현장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

“기자로서 30년을 생활하다가 처음 경영책임자가 됐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드라마 부문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드라마는 단순히 연출자와 작가, 배우들이 함께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작 전부터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특히 ‘제빵왕 김탁구’의 경우는 방송하기 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해 자칫 방송이 되지 못할 처지까지 치달아서 사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죠. 그때 ‘드라마가 방송된 내용 뒤의 제작 과정에서 드라마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느낀 후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 하나 메모했는데, 사장을 그만두고 그것을 엮어 책을 만들었습니다.”

－ 올 한 해 개인적으로나 재단 업무적으로나 꼭 이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봅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은 해에 가장 눈여겨볼 것은 미국과 중국의 신뢰 관계 형성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신뢰가 있는 대화를 지속한다면 북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량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들도 우리 한반도의 진정한 봄이 오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다같이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모아 보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사진= 邊廷朱기자·정리= 林香默기자)

“관악캠퍼스에 융·복합연구병원 추진”

동문특 찾아서

모교 吳秉熙 병원장

지난 5월 31일 모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吳秉熙(의학71-77)교수가 제16대 모교 병원장으로 임명됐다. 모교 병원장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吳원장은 모교 병원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창조·공감·혁신’ 세

가지 키워드 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방안으로 의학 연구는 물론 자연·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등 모든 분야가 어우러진 융·복합연구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융·복합연구병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담 : 尹在錫(CBS 객원해설위원)논설위원

— 새롭게 모교 병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도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꼭 해야겠다는 어떤 뜻이 있었는지요.

“지난 2010년의 도전은 실질적으로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병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고보다는 기획조정실장, 강남센터 원장 등 병원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자연스런 흐름의 연장이 컸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모교 병원이 다시 한 번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에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 의료 환경이 시설 등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도 남아 있어 국가 전체 의료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모교 병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또 동료 교수들의 의견도 수렴해 도전하게 됐습니다.”

—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해 주신다면.

“병원의 공적인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국가의료시스템에 있어서 치료 및 병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및 관리를 잘함으로써 합병증을 막게 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봐요. 특히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난달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창조, 공감, 혁신’ 등 세 가지 키워드 공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모교 병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업무, 특히 교육과 연구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은 하나의 원인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의학 연구뿐만 아니라 자연·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ICT) 등 모든 분야가 어우러진 융·복합 연구를 해야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개념에서 창조라는 말을 사용한 거죠. 공감은 ‘서울대 병원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해 병원 구성원 모두 공감하자는 취지입니다. 끝으로 혁신의 경우 모교 병원이 법안화된 지 35년이 됐는데, 아직도 관료 시스템이 더러 남아 과거 사용된 명칭과 부서가 그대로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새롭게 혁신 조직으로 바뀌야만 병원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창조’, ‘공감’, ‘혁신’이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 吳원장은

1953년 대구 출생으로 1977년 모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에서 내과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모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모교 병원 기획조정실장, 심혈관센터장, 진료부원장, 강남센터 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SCI(과학논문색인)급 논문 2백편 이상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으로 현재 세계심부전학회 이사, Pulse of Asia Society 회장,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 공동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5년부터 국내 연구진 최초로 ‘글로벌 최초 신약 등록을 위한 다국가 제3상 임상시험’ 총괄연구책임자로 선임돼 국내 임상연구 수준의 국제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교육·연구·진료 등 공공의료 주력

— 앞서 ‘융·복합 연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의학, ICT, 자연·생명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위한 ‘융·복합연구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관악캠퍼스 안에 설립한다면 관악 식구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병원 역할도 하면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병원장 공모 제안서에서도 밝혔고 일전에 모교 吳然天총장님에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융·복합연구병원에 대해 건의를 하고 어필할 생각입니다. 丁憲源 前 병원장 시절 연구강화를 위해 융·복합연구원을 계획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 이를 참조하려고 합니다.”

— 최근 언론매체를 보면 많은 병원들이 연구성과 등 병원의 경쟁력을 어필하는 것

에 비해 모교 병원은 조금 소극적인 모습 같아요. 모교 병원만이 지닌 강점을 기입없이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매주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학 관심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모교 병원의 이름을 걸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과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안을 알려주는 일을 꾸준히 하다보면 새로운 사안이 생겼을 때 ‘서울대 병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가 간다’라는 인식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 모교 병원은 의료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의료봉사 등 공공의료 실현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교 병원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원장이 사업

단장을 겸임하게 돼 있어요.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인 교육, 연구, 진료뿐만 아니라 국내의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봉사를 비롯해 큰 재난을 당한 곳이나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 현지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 및 수술 등의 지원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 단발적인 의료지원도 의미가 크지만 현지 의료진에 대한 초청 교육 등을 통해 진료와 수술 등에서 스스로 의료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한 해 2백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어린이병원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공공의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현재 몇 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나요.

“초창기 모교 병원만 운영되다가 어린이병원이 생겼지요. 그 다음 보라매병원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고 분당병원, 강남센터, 암병원을 차례로 개원했습니다. 강남센터의 경우 앞으로 미래의료가 가질 예방과 관리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검진센터와 여러 가지 예방·관리중심 의료시스템을 중점으로 만들었습니다.”

— 모교 병원은 아무래도 연구쪽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직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연구 교육이 무척 중요한 부분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병원이 의과대학과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구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융·복합연구병원 설립을 말씀드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고요.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계획돼 있던 사업의 우선순위를 앞당겨서라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전국 의대 교수의 23~24%, 아산병원 및 삼성병원 의사 70~80%가 모교 의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결국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저희의 큰 역할 중 하나라고 봅니다.”

— 최고의 명의로 건강법을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건강 노하우를 소개해 주신다면.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겠죠. 저 또한 오랜 시간 매일 아침 한 시간 가량 헬스클럽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걷기 등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가급적 싱겁게 먹으라고 주변에 조언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 邊廷朱기자·정리= 林香默기자)



邊昌九연구부총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善眞동문(成耆鶴회장 부인), 朴三求회장, 吳然天총장, 金鐘變회장, 任廷基기획부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

제6회 발전공로상 3명 시상

金鐘變·成耆鶴동문, 朴三求회장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6월 24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제6회 발전공로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삼익약기 金鐘變(사회사업 66-70)회장, 금호아시아그룹 朴三求회장, 영원무역 成耆鶴(무역 66-70)회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오늘 수상자들은 창조적 기업인으로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에 기여했으며, 교육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모교 구성원은 수상자들의 뜻을 접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자기혁신에 임하면서 진정한 대학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林光洙회장을 대신해 수상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넨 뒤 “모교는 吳然天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법인화를 출범시킴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교가 계속 발전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기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金鐘變회장은 사회과학대학과 음악대학 우수 인재 육성 학술기금 및 아시아연구소 학술기금 등을 출연해 모교의 교육·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金회장은 본회 부회장, 모교 모금 캠페인 ‘SNU Challenge’ 발전위원회 집행위원 등 대학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朴三求회장은 모교에 ‘금호예술기금’을 출연해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의 여러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 분야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朴회장은 금호예술문화재단을 설립해 우리 사회의 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해오고 있다.

成耆鶴회장은 경영대학·경제학부 학술기금과 아시아연구소 건립기금 등 모교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 장학기금을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다. 특히 모교 학생들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회봉사단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邊昌九교육부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善眞(농가정 69-73)동문, 李庚烈(응용미술 69-73)동문, 한국폴리텍대학 朴鍾九이사장 등 수상자 가족, 각계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의대 白靄民교수 사회봉사상 수상

모교는 지난 6월 13일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제3회 사회봉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얼굴기형 어린이 수술 등 24년간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에 헌신해온 의대 성형외

과학교실 白靄民(의학 77-84)교수를 선정했다.

白교수는 1989년 세민얼굴기형동기회(Smile For Children)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1천2백여 명의 우리나라 얼굴기형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수술을 통해



좌로부터 세 번째 吳然天총장, 白靄民교수



李愚日학장, 金外鉉총괄사장, 洪起俊부회장, 金範洙의장

‘자랑스러운 동문상’ 3명 시상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愚日)은 지난 6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한화케미칼 洪起俊(화학공학 69-73) 부회장,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

본부 金外鉉(조선공학 71-75)총괄사장, 카카오 이사회 金範洙(산업공학 86-90)의장을 선정했다.

洪起俊부회장은 현장 엔지니어로 시작해 40년 가까이 화학업계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전문경영인이다. 유화학업계의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섰으며 태양광, 바이오 의약품, 첨단 소재 사업 등 차세대 화학산업을 적극 추진해 국내 화학

희망을 전달하며 봉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1996년부터 매년 여름 베트남 도립병원을 순회하며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를 무료로 수술해 오고 있으며, 18년 동안 총 3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수술을 통해 희망을 전달했다.

베트남 현지 병원에 수술장비를 지원하고 베트남 의사를 한국에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베트남 양국 간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05년부터는 분당 모교병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으로 의료봉사를 확대하면서 베트남에서의 봉사와 함께 해외의료봉사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및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金外鉉총괄사장은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을 세계 1위로 키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조선의 기초·기반 기술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계와 산업계의 교류를 이끌었다. 설계기술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경영인으로서 조선과 해양의 통합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金範洙의장은 일찍이 PC기반 웹 시대의 도래를 예측해 ‘한게임’, ‘네이버’를 성공시켰고, 최근에는 ‘카카오톡’의 개발로 스마트폰 앱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인 1백명을 후원하고 모교 공대에 1억원의 기탁금을 기부함으로써 미래 IT인들의 멘토로 인정받고 있다.

공대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총 20회에 걸쳐 해외활동 부문 26명, 국내활동 부문 4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모교 병원 우수전공의 2명에

제3회 앙드레 김 어워드 시상

모교 병원(원장 吳秉熙)은 지난 6월 21일 2010년 8월 작고한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후원으로 제정된 제3회 앙드레 김 어워드 수상자로 우수전공의 2명을 선정, 시상했다.

이 상은 고인이 촉망받는 의료인재 양성에 쓰길 바란다는 지병 치료를 위해 내원해오던 모교 병원에 10억원의 ‘우수전공의 포상기금’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원금의 일부로 제정됐다. 고인은

작고 때까지 5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고 작고 후에도 6천5백만원을 추가 후원했다.

모교 병원은 매년 병원 내 2~3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해외연수계획서, 논문발표 실적, 근무평가 성적 등을 기준으로 교육위원회를 거쳐 선발한 우수전공의에게 ‘앙드레 김 어워드’를 시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방사선종양학과 이주호 전공의와 내과 김영기 전공의가 상을 받았다.

에티오피아 12개 대학 총장단

모교 방문 … 교류협력 논의

모교는 지난 6월 21일 에티오피아 12개 대학 총장단과 접견을 갖고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이날 접견에는 모교 공대 교수에서 퇴임한 뒤 지난해 국립아마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李章揆총장 등 12개 대학의 총장단과 교육부 Dinssa차관이 참석했다.

모교는 향후 에티오피아 대학들과 공학, 농학, 의학 등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에티오피아 대학 총장단은 다양한 분야의 모교 전·현직 교수들이 에티오피아의 인재 육성과 연구활동에 참여해 공학과 과학 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춘계 오픈볼 우승 미식축구부

모교 미식축구부(Green Terrors)가 지난 5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2013 서울 춘계 오픈볼 결승전에서 성균관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모교 미식축구부는 지난 1965년 농대에서 창단된 이후 서울지역 대회에서 21번의 우승, 11번의 준우승을 기록했으며, 아카시안볼 경기에서 세 차례 우승, 두 차례 준우승을 거뒀다. (香)





삼성 딜라이트에서 놀자! d'light play 하자!

강남 한복판에 우리들만의 Play Ground가 있다.
삼성 딜라이트에서 펼쳐지는 공연, 세미나,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과 함께 마음껏 놀고 배우고 즐기세요.

d'light stage

매월 둘째 토요일마다 펼쳐지는
실력과 뮤지션들의 멋진 콘서트

d'light talk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세미나형식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배움과 대화의 기회

d'light cinema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엄선된 영화들을
무료로 관람

d'light sports

직접 즐기는 신나는 e-스포츠에서 각종
e-스포츠 대회, 선수 팬 사인회까지

d'light tour

서울시 교육청에서 현장체험 학습기관
으로 지정된 딜라이트의 생생한 맞춤형
투어서비스

d'light showcase

삼성전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 행사

d'light party

다양한 이벤트와 무료공연 관람 등
선물까지 가득한 신나는 파티

d'light gallery

회화, 사진 등 주요 예술가들의
다양한 전시회

*삼성 딜라이트는 삼성전자 최신제품에 대한 체험과 구매,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즐길 수 있는 삼성전자의 홍보관입니다.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바로 연결)

*관람안내 : 월~토(공휴일, 일요일 휴관) 10:00~19:00 / 02)2255-2277 ※ 자세한 내용은 삼성 딜라이트 카페에서 확인해 주세요! cafe.naver.com/samsungdlight

콩트 릴레이

어떤 귀향

林 敬 淳(국어교육83-87)

한국외대 교수



남으로 떠나는 마지막 기차가 기적을 올렸다. 여관 주인은 역이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이라면서 방세는 선불이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K역에서 나올 때 부슬부슬하던 빗방울이 제법 굵어졌다. K읍은 김민배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후 찬바람이 뽕뽕 부는 겨울날이 돼서야 하룻밤을 묵어 가곤 했던 고향이었다. 그땐 그래도 그의 어머니와 사촌들이 살았건만, 이제는 찾아갈 혈육도, 집도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아니 갑자기 웬 출장이세요?”

아내는 출장 때면 늘상 그랬듯이 여행용 가방을 챙기면서 남편의 갑작스런 출장에

직 서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부장도 알 텐데.’

“김 과장, 자네도 알다시피 분단선 너머 공단에 있는 공장이 폐쇄돼 회사가 매우 어렵게 됐네. 자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회사도 잘 알고 있네. 며칠 여행이나 다녀 오게.”

그는 부장이 임석한 자리에서 사장이 한 말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줄을 몰랐다. 공단 폐쇄로 회사의 앞날이 어둡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자기에게 불뚝이 떨어질 줄은 몰랐다. 사장인들 어떤 방책이 있겠는가. 두 자식과 어머

“

공단 폐쇄로 회사의 앞날이 어둡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자기에게 불뚝이 떨어질 줄은 몰랐다. 사장인들 어떤 방책이 있겠는가. 두 자식과 어머니,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

”

입이 씹룩했다.

“응, 그렇게 됐어. 요새 정국에 회사일이라는 게 워낙 알 수 없이 돌아가잖아?”

“그래도 그렇지요. 전화라도 주시지….”

어려워진 회사 형편에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는 가슴에 사표를 쓰고 다녀야 했다. 耳順을 바라보는 그 나이쯤이면 부장으로 승진했어도 벌써 했어야 했는데, 그는 과장 직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서울 변두리에 가까스로 장만한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면서, 두 아이의 학원비를 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낡아버린 자가용도 팔아치운 지도 여러 해가 됐다.

늘 출근할 때면 사들고 가던 원두커피 향은 착잡한 그의 마음을 잊게 해주는 위안제였으므로, 그것이 다할 때까지 잠시나마 무념무상에 젖는 것이 그에게는 일상의 거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과장님, 김 부장님이 찾으시는데요?”

눈이 특히 매력적인 미스 서가 오늘 던져놓은 첫마디다.

‘부장이 이른 시각에 호출을 하다니, 아

니,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

‘잠깐이면 돼. 곧 돌아올 수 있겠지.’

그는 회사 정문을 나섰다.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이 도시에 던져졌을 때도 이렇게 까진 참담하지 않았다. 그때는 총각이었으며, 젊었으므로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시위 전력으로 간신히 얻게 된 직장을 갖고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고, 어머니도 모셔왔으므로 이제 겨우 오십을 바라보는 가정으로서의 집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누구세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누가 감히 우리의 행복을 넘볼 수 있느냐는 말투이다.

“저예요, 어머니.”

“아니, 아범이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무슨 일 있으세요.”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서며 말했다.

“응,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됐어.”

요란한 발걸음 소리와 사람들의 취한 목소리가 좁다란 여관 복도의 침묵을 잠시 동안 뒤흔들어 놓았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을 뿐 비는 더 이상 뿌리지 않았다. 그는 여관 문을 나섰다. 여름의 문턱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비바람은 싸늘한 냉기를 남기었다. 역 앞에서 경찰서로 시원하게 뿜린 사차선 도로를 따라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 뒤편에 ‘되는집’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안쪽으로 주방이 보이고, 식탁 몇 개와 의자들이 오지 않은 손님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육십을 넘겨 보이는 여자가 반겼다.

“손님이 없나보죠.”

“말도 마세요. 요즘은 아이엠인가 뒤틀인가 그 때보다 더 해요. 내 장사한 지 삼십 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요.”

그는 대꾸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뭘 드실라우.”

“우선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는 들어오기 전부터 이 집 간판이 낯익은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 낯익음이 이 집에 들어오게 했으므로.

“보아하니 이곳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소.”

“이곳이 원래 고향입니다. 잠시 객지에 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아주머니는 이곳이 고향입니까?”

“임실서 스무 살에 시집 와서 아들 둘하고 딸 셋을 낳아 둘은 대학까지 보내고…; 막내만 빼고 결혼도 시켰고…; 참 무던히도 고생했지요.”

여주인은 묻지도 않은 자식 이야기까지 늘어놓았다.

여주인은 말 끝머리에 큰자식은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했다.

“아무나 그런 대학을 들어갈 수 없지.”

그리고 보니, ‘되는집’의 친숙함은 아들을 명문대학에 보냈다는 소문으로 들던 바로 그 집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그 자제분은 자주 연락이 오겠군요.”

“아, 오다마다. 옛그저께도 다녀갔는걸. 이런 시골에서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큰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소. 요즘은 워낙 바빠서….”

여주인의 말 끝머리와 표정으로 보아 분명 뭔가 불편한 심정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그는 단숨에 한 잔을 들이켰다.

“갈 데가 없는 게구려.”

여주인은 안주를 놓으며 오랜 시간이 쌓아놓은 육감으로 던져 놓았다.

‘정말 갈 곳이 없단 말인가.’

민배는 문득 혈육을, 친구를 떠올려 보았다. 오래전에 어머니도 서울에 올라오셨고, 남아 있던 외숙모도 아들 따라 인천으로 올

라갔고, 친구들도 도청 소재지로 다들 나가고 없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옆에는 기다란 연장 가방을 멘 서너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여주인과 그들은 초면이 아닌 듯 대중 인사를 하는 사이에 그녀는 소주병을 들고 갔다.

“오늘은 돈벌이가 관창았소?”

“말도 마쇼 원, 뭘놈의 비가 그렇게 오는지.”

“거 뭇이나 김 사장도 튀었다며. 나 참, 그 양반한테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글쎄, 그 돈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 인생인데, 그 돈마저 떼인다면 어찌 살라고.”

“가진 사람들이 더하는구먼.”

“한 잔 하세나.”

하루살이 인생. 그 하루살이 인생이 그에게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친구 아버지도, 그 친구도 막노동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술로 노동을 달래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역시 가게의 대를 잇듯이 막노동꾼으로 나갔다. 토목기사 자격증만 따면 무언가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서 어느 전문대학 토목공학과를 다니기도 했지만,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위암을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되는집’을 나온 그는 K역 광장에 있는 시계탑을 보면서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당신이에요. 왜 이렇게 소식이 늦었어요.”

“응,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있어서, 깜박했네. 어머님은 잘 주무시지. 애들도 잘 자고?”

“네, 염려 마세요. 하시는 일이나 잘 마치고 돌아오세요. 숙소는 정하셨지요. 숙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응, 지금 박인데, 아까 숙소를 나오면서 그냥 나왔거든.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 수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할게.”

“그래요. 그럼 내일 아침에 꼭 연락 주세요. 참,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쯤, 그럼 내일 아침에 봐요.”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될걸, 아내는 늘 숙소 전화번호를 요구한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아내의 보호 본능에서 나온 것일까. 그는 형광등을 켜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불빛이 없음으로 안과 바깥이 소통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 좋았다. 역 앞 광장의 가로등 뒤로 깔도 없는 검은 바다가 펼쳐 있었다. 별도 달도 그 속에 묻혀 버린 밤. 그는 검은 물 속에 한동안 잠겨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대학 시절의 겨울 어느 날,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있었다. 그는 차창 너머로 들판을 하얀 이슬로 드러내고 있는 눈 덮인 들판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것들이 뭔가 말을 건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내려고 애썼다. 그것은 삼십 년 전의 마을 어른들의 목소리였다. ‘요새 공부 잘 하고 있는가’, ‘그 데모하는 데는 휩쓸리지 마쇼’, ‘꼭 성공하게’, ‘자네는 우리 마을과 나라의 기둥이 돼야 하네’. 그는 언젠가 저 눈도 녹아내릴 것이며, 그러면 마을 어른들의 목소리도 함께 녹아내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기차는 선로에 쌓인 눈을 흠뻑리며 북으로 달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진 자카르타로!
아시아나, 7월 19일부터 자카르타 매일 운항

서울(인천) 17:15 출발 22:15 도착 23:45 출발 08:55+1 도착 자카르타

■ 예약 및 문의 • 1588-8000 • flyasiana.com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

www.ktl.re.kr

KTL은 기업과 함께 세계로 뻗어 갑니다.



세계적인 기술 인증기관의 리더_KTL

국내 기업의 세계진출과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KTL의 품질, 안전, 성능의 글로벌 인증은 이미 기술 선진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TL은 품질인증, 시험평가, 환경기술지원, 의료기기, 표준계측과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미래산업인 에너지, IT, 원전, 자동차, 철도, 조선, 항공산업의 첨단 산업 기술 인증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도 기업과 함께 계속 될 것입니다.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orea Testing Laboratory
정부출연기관 | 특정연구기관



백리 깊은 나무가
천년을 이어갑니다

거친 비, 바람에도 버텨온
고려아연의 뿌리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고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마음껏 일하며 개개인의 창의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 명예회장 최 창 곁(상대 18기), 최 창 영(공대 64入)
- 회 장 최 창 근(공대 66入)
- 사 장 이 의 룡(상대 24기)

 고려아연(주)
www.koreazinc.co.kr

 HITEJINRO

하이트제로 0.00
함께 즐기다
ZERO니까!



동 정

수 상

▲李廷政(영문59-63 모교 언어학과 명예교수)= 최근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인지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평생공로상' 수상.

▲金贊鎭(법학59-63 前국회의원·변호사)= 지난 6월 13일 미국 워싱턴대 법대 아시아법센터에서 공로상 수상.

▲朴興日(영어교육60-64 한국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명예이사장)= 최근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수여하는 '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 교계연합부문 대상을 수상.

▲朴柱仙(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본회 부회장)=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세계결스카우트 아대지역대회에서 공로상 수상.

▲安三煥(독문62-66 모교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지난 6월 12일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 십자공로훈장 수훈.

▲崔明玉(국문65-73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지난 6월 9일 일석학술재단으로부터 제11회 일석국어학상 수상.

▲鄭夢準(경제70-75 국회의원·본회 부회장)= 지난 6월 3일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독일정부로부터 대십자 공로훈장 수훈.

▲李德宰(금속공학72-76 동부제철 부사장)= 지난 6월 10일 제14철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 훈장 수훈.

▲盧在賢(국어교육77-84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수여하는 5·18언론상(논평부문) 수상.

▲朴鍾逸(수학82-86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지난 7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韓享九(경제87-91 연세대 교수)= 지난 7월 9일 제31회 정진기언론문화상(경제경영도서부문) 대상 수상.

▲金빛내리(미생물88-92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지난 7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車明眞(의학01-07 모교 병원 내과 전임의)=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회 유럽심장부정맥학회에서 최우수 초록 발표자상(Best Abstract Presentation) 수상.

▲丁海淳(SGS 5기 성아테크 대표)= 지난 6월 18일 서울 노원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嚴正根(AMP 57기 하이스틸 사장)= 지난 6월 10일 제14철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 수훈.

인 사

▲李在賢(치의학50-56 前단국대 치대 학장·前대 한구강보건협회장)= 최근 단국대 치과대학 석좌교수에 임용.

▲李吉女(의학51-57 가전길재단 회장·가전대 총장·본회 부회장)= 지난 6월 10일 미국 비즈니스 잡지 '포브스' 아시아판 '아시아 기부 영웅 48인'에 선정. 또 헤럴드경제신문이 발표한 '대한민국 파워 60인'에 선정.

▲韓完相(사회55-60 前대한적십자사 총재)= 지난 6월 24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초대 이사장에 선임.

▲梁承澤(전기공학57-61 前정보통신부 장관)= 지난 6월 11일 사단법인 글로벌경영협회 초대 회장에 선임.

▲車興奉(사회62-69 前보건복지부 장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지난 6월 25일 임기 4년의 세계노년학회 회장에 선임.

▲李康國(행정63-67 前헌법재판소장)= 최근 모교 법과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빙석좌교수에 임명.

▲宋鍾奭(외교64-68 前국가안전기획부 해외정보실장·명지대 초빙교수)= 지난 6월 14일駐 크로아티아대사에 임명.

▲郭柄善(교육66-70 前경인여대 총장·前한국교육개발원장)= 지난 5월 27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

▲崔 洸(경영66-70 前보건복지부 장관·前한국외대 교수)= 지난 5월 2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

▲李弼商(금속공학68-72 前고려대 총장·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6월 9일 유한재단 이사장에 취임.

▲姜雲太(외교68-72 광주광역시장)= 지난 6월 26일 매경미디어그룹이 발표한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글로벌부문)에 선정.

▲金大煥(경제68-75 前노동부장관·인하대 교수)= 지난 6월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金錫俊(토목공학69-73 前국회의원·前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모교 행대원 초빙교수)= 최근 임기 2년의 미국 UCLA 한국동창회 회장에 취임.

▲洪井善(법학69-73 연세대 교수)= 지난 6월 13일 제5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장에 위촉.

▲朴英錫(토목공학71-75 명지대 교수)= 지난 6월 14일 임기 2년의 한국강구조학회 제13대 회장에 선출.

▲吳元錫(기계공학71-75 코리아에프티 회장)= 지난 6월 26일 매경미디어그룹이 발표한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글로벌 부문)에 선정.

▲李允聖(의학71-77 모교 법의학 교실 교수)= 지난 6월 5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제2대 원장에 취임.

▲權鎮鳳(농공학71-78 한국감정원장)= 지난 6월 26일 매경미디어그룹이 발표한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지속가능부문)에 선정.

▲金光旭(국문72-76 前노보텔엠 배서터 강남호텔 사장)= 지난 6월 3일 그랜드엠배서터서울호텔 대표이사에 선임.

▲玄天旭(법학72-76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지난 7월 1일 국제로터리3640지구 제20대 총재에 취임.

대표이사 김혜정 [82인 독어독문]

좋은사랑만다
결혼해 듀오

[성혼회원수 26,670명 | 점유율 63.2%, 매출 1위]
(2013년 4월 22일 기준) (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

*성혼회원수는 듀오에 가입된 남녀회원간의 누적 성혼수입니다(1995.2.14~2013.4.22)
*위 그래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의결서(2012.3.29)에 들어있는 표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의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수원·천안·전주·강원·제주·LA·뉴욕·뉴질랜드

매 듀오
www.duo.co.kr

한국대표결혼정보회사
15개
-8333



▲全洪澤(경제72-76 前한국개발연구원 발전구상팀장)= 지난 6월 18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에 선임.

▲李憲圭(전기공학73-77 前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지난 6월 2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에 선임.

▲趙靑遠(화학공학73-77 前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지난 6월 12일 국립대구과학관 초대 관장에 임명.

▲蔡致誠(국악73-80 한국국악협회 감사·서울시 문화재위원)= 지난 6월 7일 임기 3년의 국악방송 사장에 임명.

▲金熙玉(신대원76졸 동국대 총장)= 지난 6월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徐炯源(철학74-78 駐일본 공사)= 지난 6월 14일 駐크로아티아 대사에 임명.

▲徐正河(정치74-78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지난 6월 14일 駐싱가포르 대사에 임명.

▲許英燮(지리교육74-78 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본보 논설위원)= 지난 6월 19일 한국일보 논설위원에 선임.

▲金奉炫(언어79졸 前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지난 6월 14일

駐호주 대사에 임명.
▲金庸憲(법학74-79 前서울가정법원장·광주고등법원장)= 지난 6월 10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임명.

▲朴榮植(독문79졸 대우건설 기획·영업부문장)= 지난 7월 15일 대우건설 사장에 선임.

▲裴鍾河(경제75-79 前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지난 7월 8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베트남 국가사무소장에 부임.

▲李是衡(외교75-79 前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지난 5월 23일 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에 임명.

▲文河泳(법학75-79 前재외동포영사대사)= 지난 6월 14일 駐체코 대사에 임명.

▲安洋玉(체육교육75-79 한국고원단체총연합회장)= 지난 6월 20일 한국고원단체총연합회 제35대 회장에 취임.

▲金俊經(계산통계80졸 前청와대 재정경제2비서관)= 지난 5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임명.

▲鄭夏鏡(영어교육80졸 前특임차관)= 지난 5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명.

▲玉東錫(경제76-80 前재정법학회장·인천대 교수)= 지난 5월 30일 한국조세연구원 제11대 원장에 임명.

▲朴海潤(해양81졸 前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지난 6월 14일 駐아일랜드 대사에 임명.

▲李起燮(행정77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지난 6월 26일 매경미디어그룹이 발표한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사회책임부문)에 선정.

▲李長錫(영문77-81 前MBC 보도제작국장·위싱턴지사장)= 지난 5월 21일 MBC 경영기획본부장에 선임.

▲金根秀(경영77-81 前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지난 6월 4일 임기 3년의 제10대 여신금융협회장에 선임.

▲鄭景秀(경영77-81 前에이티파트너스 대표)= 지난 6월 20일 동부화재 자산운용부부장(부사장)에 선임.

▲朴太紘(화학공학77-81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지난 6월 9일 모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에 선임.

▲梁承敦(기악77-84 원광대 교수)= 지난 6월 18일 충북도립교향악단 제3대 예술감독 겸 지휘자에 선임.

▲林聖男(외교78-82 前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지난 6월 14일 駐영국 대사에 임명.

▲申孟浩(외교79-93 前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지난 6월 14일 駐불가리아 대사에 임명.

▲趙雲贊(국사81-85 前경향신문 문화부 선임기자·문화부장)= 지난 6월 25일 경향신문 편집국 문화에디터에 선임.

▲崔完根(사회복지81-85 前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서울지방보훈청장)= 최근 국가보훈처 차장에 임명.

▲鄭昌洙(행정81-86 前국토해양부 제1차관)= 지난 6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5대 사장에 취임.

▲洪禎昱(치의학81-87 흥정목치과 원장·모교 치대원 겸임교수)= 지난 6월 17일 임기 3년의 학교법인 공산학원(동아방송예술대학, 대전 동아공고, 디마엔터테인먼트) 감사에 취임.

▲崔基華(동양사학81-88 MBC 보도국 취재센터장)= 지난 5월 22일 MBC 기획국장에 선임.

▲梁權模(정치81-89 前경향신문 문화부장·정치국제에디터)= 지난 6월 25일 경향신문 논설위원에 선임.

▲李炯昇(농경제82-86 前IBK투자증권 대표)= 지난 6월 22일 알앤엘바이오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

▲梁根福(경영83-87 前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지난 6월 3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정감사관에 임명.

▲金三權(보대원84-86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지난 6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에 임명.

▲車濬哲(신문84-88 前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장)= 지난 6월 25일 경향신문 체육1부장에 선임.

▲尹皓雨(독문85-91 前경향신문 주간경향부장)= 지난 6월 25일 경향신문 출판국 선임기자에 선임.

▲申正澤(AMP 48기 세운철강 회장)= 지난 6월 26일 매경미디어그룹이 발표한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윤리 부문)에 선정.

▲金正泰(AMP 59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지난 6월 26일 매경미디어그룹이 발표한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가치 부문)에 선정.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 약대/성균관대 등 명문대 동창회 제휴사 엔노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고려대학교 총동창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약학대학 동창회,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연세대학교 총동창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동창회,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가정의 경제민주화 강연회 대한민국모범기업인대賞大賞 시상

서경대학교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연세대학교 총동창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약학대학 동창회,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연세대학교 총동창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동창회,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가정의 경제민주화 강연회 대한민국모범기업인대賞大賞 시상

서경대학교 총동창회,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연세대학교 총동창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약학대학 동창회,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연세대학교 총동창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동창회,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가정의 경제민주화 강연회 대한민국모범기업인대賞大賞 시상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 엔노블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치대, 서강대, 이화여대 약대, 성균관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단독 제휴사
- 다양한 전문직, 관/공기업 제휴 (치과 공보의 협의회, KOTRA, 서울시 공무원 노조 등)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즈대상, 2012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지원장상" 수상
- 성혼주의 - 1년 회원기간 중 만남횟수 제한이 없는 멤버십 회원제
- 철저한 3:1 비공개 회원관리 ■ 다채로운 노블레스 파티 이벤트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멤버십 제휴혜택(하나투어, 코오롱스포츠 서초점, 르네상스 호텔 등)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삼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李廷益 (ACAD 34기 서광종합개발 회장) =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통일중앙회 임시총회에서 의장에 선임.

▲金漢昱 (ACAD 52기 前제주도 행정부지사) = 지난 6월 7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센터 (JDC) 이사장에 임명.

▲姜太善 (ACAD 72기 블랙야크 회장) = 지난 6월 26일 매경미디어그룹이 발표한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 리더 (브랜드부문)에 선정.

▲鄭昌永 (AIC 13기 前코레일 사장) = 지난 6월 26일 매경미디어그룹이 발표한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 (상생부문)에 선정.

▲權純漢 (GLP 5기 前한국수입업 협회장·소이상사 대표) = 지난 6월 25일 한국외대 동문회 제 29대 회장에 재선출.

▲黃乙文 (SPARC 21기 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 = 지난 6월 25일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제10대 회장에 선출.

▲崔圭鉉 (IFP 1기 하쿠호도제일 대표) = 지난 6월 10일 한화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한컴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 행 사

▲鄭秉起 (농경제52-57 前세계은행 농업컨설턴트·용인시 탁구사랑동우회 고문) = 지난 6월 11일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관에서 ‘용인시 노인의 여가문화 창조’를 주제로 특강.

▲李元魯 (의학56-62 인제대 총장) =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스리랑카 국립 스리자예와데네푸라 간호대학을 방문,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孫京植 (법학57-61 CJ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본회 부회장) = 지난 6월 19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미국외교협회

리처드 하스 회장을 만나 양기관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논의.

▲韓英玉 (회화58-62 모교 미대 58동문회장) =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관악동 갤러리에서 제29회 58동문전 개최.

▲李玉姬 (기악60-64 서울튜터앙상블 이사장) = 지난 7월 7일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서울튜터앙상블 오케스트라 창단 25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金勳東 (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 = 지난 6월 17~24일 갤러리 예술마당에서 ‘수원예총 50년 - 문학, 미술, 사진예술

을 조명한다’를 주제로 기념전시회 개최.

▲朴聖炫 (화학공학64-68 모교 통계학과 명예교수·한국과학기술원 원장) = 지난 6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 개최.

▲張萬基 (경대원66-68 인간개발연구원장) = 지난 6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미래연구원 金廣斗원장을 초청, ‘구조조정 딜레마’를 주제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개최.

▲吳然天 (정치70-74 모교 총장) = 지난 6월 26~2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17회 환태평양 대학연합 (APRU) 총장포럼에 참석.

▲姜南俊 (교육70-78 모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 지난 6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창조의 공동체 : 인문과 예술, 그리고 기술’을 주제로 HubCon(Humanity-base Convergence) 컨퍼런스 개최.

▲金明坤 (독어교육71-76 동양대 석좌교수·아리 인터웍스 대표) =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서울 해동 예술공간

해화에서 공연하는 연극 ‘만두와 깔창’ 연출.

▲尹永斗 (기상71-78 아시아나항공 사장) = 최근 중국 하얼빈 우창

시 조선직실협소학교와 ‘아름다운 교실’ 자매결연 맺음.

▲權東一 (금속공학75-79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한국법과학회장) = 지난 6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강의실에서 ‘안전한 사회와 법과학’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李桐弼 (대학원81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지난 6월 16~22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38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식품시스템’을 주제로 기조연설.

▲李相起 (서양사학81-87 아시아N 발행인·본보 논설위원) = 지난 6월 25일 아시아기자협회 소속 필진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월간지 ‘매거진N’ 창간.

▲趙明湜 (회화82-87 국민대 교

수) =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 안국동 사이아트갤러리에서 金泰坤(조소86-92 국민대 교수)동문과 함께 2인전 개최.

▲李承權 (기악90-94 클라리네스트) = 오는 7월 19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슈만, 모차르트 등의 작품으로 클라리넷 독주회 개최.

▲백수련 (기악02-06 바이올리니스트) = 오는 7월 1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프로코피예프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陳瑞炯 (ACAD 42기 진진행자원경제연구소장·한중미경제문화교류센터 회장) = 지난 5월 30일 서울 관악구민회관에서 ‘제2광물자원전쟁’(프란시스카) 출판기념회 개최.

■ 참가 명부를 씁니다 ■

- ▲辛玉夏 (의학51-57 前산부인과의원장) = 6월 8일 별세 (81세)
- ▲韓結煥 (경제54-58 前한일투자자문 상무) = 6월 3일 별세 (78세)
- ▲嚴鶴善 (법학55-61 前한국단자 감사) = 6월 4일 별세 (77세)
- ▲申國鉉 (약학58-62 모교 명예교수) = 6월 25일 별세 (76세)
- ▲尹學鎭 (화학교육59-63 신세기관세사무소 대표) = 6월 21일 별세 (74세)
- ▲李正根 (국어교육61-65 前행당여중 교장) = 6월 2일 별세 (74세)
- ▲呂運昇 (경영63-69 前한양대 교수) = 6월 18일 별세 (69세)
- ▲姜吉聲 (회화81-85 화백) = 6월 5일 별세 (51세)
- ▲金明燮 (ACAD 31기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 6월 21일 별세 (75세)
- ▲安正男 (ACAD 36기 前건설교통부 장관) = 6월 11일 별세 (72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IEEE English for Engineering

공학과 영어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공대 시절, 전공과 영어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공학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KITS 산학연정보사는 세계적인 명성의 공학 전문 학회인 IEEE가
세계적인 명성의 영어 전문 교육기관인 Cambridge University와 함께 만든
최고의 공학영어 학습프로그램인 IEEE English for Engineering을
우리나라 모든 공대생들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내 20개 대학에서
2,000여 명의 회원들이
IEEE Student Branch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http://english.ieee-elearning.org>
에서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jinbosmc.com

FRP·SMC

디자인 설계 제작





자동차분야



의료기기분야



산업기기분야



건축분야

진보공업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38-3 Tel. 031-665-5436



Created of Highest Value

창의적 사고, 정직한 서비스, 고객의 성공에 헌신하는 부동산개발 전문 기업

저희 이스트원 산업개발(주)는 부동산 분양대행, 임대대행, 입주관리를 중심으로 각종 개발 사업 및 컨설팅 등 건설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대행 ▶ 분양대행 ▶ 임대대행 ▶ 부동산컨설팅



E.S.T ONE
E.S. Tone Industrial & Development Co., Ltd.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E동 902호
TEL : 02-521-0545 FAX : 02-2055-0545

부산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태웅빌딩 9F
TEL : 051-642-6628 FAX : 051-642-6629

이스트원산업개발(주)



2013년도 스마트벤처창업학교 공개모집

모집기간	2013.6.25(화) ~ 7.19(금) 18:00
모집분야	소프트웨어 융합, 콘텐츠, 앱
모집자격	만 40세 미만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선정규모	55개팀 내외, 1팀 최대 4명까지
지원규모	청년창업자별 최대 1억원 한도
접수방법	각 주관기관 온라인 · 우편 접수 * 수도권-옵니텔 (http://www.omnitel.co.kr) * 비수도권-경북대 (http://www.svik.or.kr)

문의처 070-7605-6130
svi@omnitel.co.kr

우편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12-8번지
대림포스트타워 1차 3층 옵니텔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Smart Venture Institute

omnitel





HDC Hyundai Development Company IPARK

세상을 잇는 힘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 삶의 터전을 지어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생활의 여유를 누리게 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꿈이 현실이 되도록
현대산업개발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설, 금융, 쇼핑, 호텔, 약기, IT, 첨단소재,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잇다
HDC 현대산업개발

HDC 아이시아스	HDC 현대EP	HDC 현대아이파크몰
HDC 아이서비스	HDC 자산운용	HDC 호텔아이파크
HDC 아이엔콘스	HDC 영창뮤직	HDC 아이파크스포츠
HDC 아이콘트러스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CHUNIL EXPRESS (주)천일고속
박주현(수리과학부 00)

一字船舶株式會社

會長 徐廷權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6-26 보광빌딩 6층
TEL : 02-578-4066 FAX : 02-578-2297
여수지점 - 전남 여수시 선원동 1342-1 대양빌딩 8층
TEL : 061-662-1821 FAX : 061-666-1460

국내유일의 굴절식 소방탐과

분말, 포말, 소화설비를 갖춘 소방 및 방제 겸용 예인선
[서해 1호(ZP) 여수항]

영업종목 : 본선 이접안 예인 · 연안 예인 · 해난 구조 · 소방, 방제



신 간

■ 명상과 심리치료의 만남
－ 鄭寅錫 역



한 국트랜스퍼스널학회 鄭寅錫(교육 51-55) 고문이 미국 오리건주 프로세스 워크센터 아놀드 민텔 소장의 저서를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은 심리학과 명상을 연결하는 새롭고 폭넓은 스펙트럼에 근거한 ‘과정중심 명상’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서구적인 심리치료의 이론·기법의 체계와 동양사상(노장사상, 각종 불교), 사마니즘의 개념 등이 통합된 새로운 현대심리학의 이론·기법 체계를 제시한다. 〈학지사刊·값14,000원〉

■ 孟子
－ 金學主 역주



모교 중어 중문학과 金學主(중문52-56) 명예교수가 孟子의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학의 정통적인 전승을 뜻하는 道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 한글세대를 위해 모호한 한자어를 남기지 않고 모두 우리말로 풀어 썼으며, 적절하고 쉬운 해설을 곁들여 한문을 잘 모르는 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문 대역으로 번역의 쟁점이 되는 부분과 어려운 한자어 등은 주석에 설명하고 있어 한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 29,000원〉

■ 침몰하는 자본주의
－ 黃秉泰 지음



한 국 의대 총장, 국회의 원, 주중 대사, 경산대 총장, 대구한 의대 총장 등을 역임한 黃秉泰(경제54-58)동문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함께 자라고 번영해온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경로로 오늘의 위기적 상황에 봉착했는지 분석했다. 저자는 인문사회적 경제학을 복원하고 전통적 산업자본주의를 되살려내야 미래가 있다고 말한다.

나이가 서구식 자유시장 자본주의 뿐 아니라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에서도 위기 극복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IBL刊·값 16,000원〉

■ 의료관리
－ 申英秀·金容益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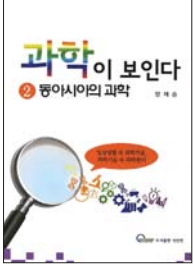
세 계 보건 기구 서태평 지역 사무처 申英秀(의학 63-69) 처장, 모교 의 료관리학교실 교수를 지낸 金容益(의학71-77)국회의원 등이 의료관리학 분야의 핵심적인 관심 주제들을 망라한 교과서. 의료관리학의 개념과 구성에서부터 시작해 보건의료 체계, 건강 관련 행태,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의 제공 및 관리, 병원관리, 보건의료 정책, 보건의료 행정, 지역사회의학, 국제보건 등의 주제를 아우른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55,000원〉

■ 아름다운 우리말 의학 전문용어 만들기
－ 殷熙哲 외 지음



모교 피부 과학교실 殷熙哲(의학68-74)교수 등이 의학용어를 실제적인 예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전문용어 순화와 제작을 위해 힘쓴 책. 일본어에서 들어온 전문용어의 문제점과 쉬운 우리말 전문용어의 정당성을 언어학의 입장에서 입증하고, 한국어 전문용어의 역사적 변천과 쉬운 우리말 해부학 용어 만들기의 실재를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북스刊·값 32,800원〉

■ 과학이 보인다 ①②
－ 梁在昇 지음



한 국 원 자 력연구원 梁在昇(식품공학70-74)책 임 연구원이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 과학기술 속 과학 원리를 소개한 책. 물리, 화학, 생물을 넘나드는 과학기술의 이야기를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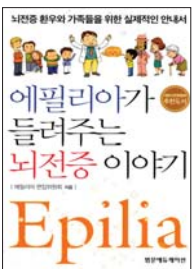
볼 수 있다. 제1권 ‘과학의 역사’에서는 거대과학의 산물, 뉴턴과 학의 완성, 산업혁명과 열역학 등의 내용을 정리했다. 제2권 ‘동아시아의 과학’에서는 중국의 자동 차산업부터 동아시아의 전통과학, 분야별 과학기술 등의 내용을 정리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刊·값13,800원/14,800원〉

■ 공공선택론 입문
－ 黃壽淵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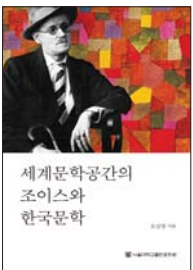
경성대 행정학과 黃壽淵(경영 72-79) 교수가 애덤 스미스 연구소 에이 먼 버틀러 소장의 책을 번역했다.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 현상을 분석하는데 경제학 방법론을 사용한다. 오늘날 공공선택 접근법은 정치·행정학과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이 책은 공공선택론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공공 선택론에 대해 간결하게 소개하고, 공공선택론을 깊이 연구한 독자들에게는 공공선택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해준다. 〈리버티刊·값12,000원〉

■ 에필리아가 들려주는 뇌전증 이야기
－ 에필리아편집위원회 지음



이 책의 집필자인 ‘에필리아’는 뇌전증을 진료하는 국내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주축이 돼 운영하는 인터넷 뇌전증 포털 사이트이다. 모교 신경과학교실 李相建(의학 81-87)교수 등을 비롯한 뇌전증 전문 의사들이 뇌전증의 극복 방법 등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범문 에듀케이션선刊·값19,000원〉

■ 세계문학공간의 조이스와 한국문학
－ 吳吉泳 지음



충남대 영어영문학과 吳吉泳(영문 84-88)교수가 당대 ‘유럽문학공화국’의 주변국이었던 아일랜드 출신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공 연

■ 조소연 피아노 독주회
－ 7월 24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조소연(기 약 94-98) 동 문(사진)이 7월 24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제20회 독주회를 갖는다. 경희대, 선화예고, 계원예고 등에 출강 중인 조 동문은 이남 바흐, 베토벤, 슈만 등의 작품을 열연한다. 〈공연문의 : 예인

예술기획 586-0945〉

■ 김나원 플루트 앙상블
－ 7월 28일 예술의 전당



‘더 리더스 플루트 앙상블’ 음 악감독인 김 나원(기 약 88-92)동문(사진)이 7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제 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서울재즈아카데미 기악과 교수로 활동 중인 김 동문은 이남 파헬벨, 헨델, 슈트라우스, 비발디, 베르디 등의 작품을 지휘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모더니즘 소설가 조이스(James Joyce)와 한국문학 사이에 이뤄진 문화적 교섭의 양상을 분석 조명한 책.

근대성과 근대주의 비판이라는 열쇠말을 중심으로 조이스 문학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감함으로써 조이스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朴泰遠이나 李 箱 등 한국의 모더니즘 작가들의 작품에 조이스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투영됐는가를 살펴보았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22,000원〉

■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 尹永鎬·高賢淑 외 지음



국립암센터 기획조정 실장을 지낸 모교 의학과 尹永鎬(의학 84-90)교수가 코칭경영원 高賢淑(소 비자아동80-93)대표 등과 함께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을 담았다. 저자는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서 주도적으로 암을 극복하며, 암 극복과 건강 회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적합한 우선순위를 정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등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을 7가지 습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공리刊·값12,000원〉

■ 리걸마인드로 바라본 법률이야기
－ 柳在遠 지음

국회사무처 법제관인 柳在遠(국

사 98-04·법 학 10졸) 동문이 미연 방 대 법 원, 뽀뽀로데이와 금융사기 사건, 마녀 재판과 형사

법제도의 발전, 세계 최강 검찰 특수부의 몰락, 노동법률 사건 등 법률적 소재의 글을 엮었다. 柳東문은 새 시대의 Legal Mind(법조적 사고)는 국민의 소망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이며, 법 조인은 이 고민을 풀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주장한다. 〈한국학술정보刊·값 12,000원〉

■ 생각의 겹
－ 李淳淑 지음



이 책은 수필식 자서전으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인생의 반추와 취재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느낀 생각, 여행기로 구성돼 있다. 86년 골프기자로는 최초로 공산주의 시절의 던힐컵 취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취재기와 북아일랜드를 비롯 해외 유수골프장 방문기록과 당대 유명한 삼성 李秉喆회장, 현대 鄭周永 회장과와의 인터뷰, 金鍾泌 前 국무총리와 李御寧동문 등의 골프 철학도 담았다. 〈골프헤럴드刊·값20,000원〉

골프헤럴드 발행인 李淳淑(ASP 11기) 사 장이 35년 골 프기자 생활을 정리한 책.

“보물섬 남해로 떠나는 맛있고 시원한 여행”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남해로 오세요!!



남해군
남해군 특산물 쇼핑몰(<http://www.enamhae.co.kr>)






엄마가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는 힘은 들어도 제 등록금 걱정은 안 하신대요.
투명하게 쓰이는 우리 학교 등록금의 높은 환원율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Mothers

등록금 환원율 전국 10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195개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실용중심교육

스펙 자랑하던 친구들이 요즘은 되레 저를 부러워합니다.
취직하고 바로 업무에 배치된 건 저뿐이거든요.
우리 학교의 실용중심교육 덕분이죠.

Companies

사장님이 좋아합니다

기업에서 믿고 찾는 대학교

We Like KPU

제 선택을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낭만을 꿈꿀 때 저는 미래를 꿈꾸었어요.
제가 지금의 직장에 입사한 건 취업명문 산기대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I

3년 연속 취업률 1위

(‘다’ 그룹)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 ① 수시 1차 : 2013. 9. 4(수) ~ 9. 13(금)
② 수시 2차 : 2013. 11. 11(월) ~ 11. 15(금)
③ 정시(나·다군) : 2013. 12. 20(금) ~ 12. 24(화)

■ 입학안내 : 1588-2036, <http://iphak.kpu.ac.kr>

해외 기계설비 시공 전문 기업

진취적이고 참신한 기업!! 기계설비의 선도자

당사는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로서 창의개발, 성실시공, 책임완수란 철학과 신념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참신한 기업으로 선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주)이엔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영구**

138-846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3-2 광동빌딩 4층
Tel : 02-2203-0981~3 Fax : 02-2203-0985
E-mail : endeng@hanmail.net
홈페이지 : www.endeng.co.kr

공기조화 설비



플랜트 설비분야



위생 설비



냉난방 설비



환경 설비



소방 설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3년 5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3. 3. 30~6. 24) · 일반 (2013. 3. 29~6. 24)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강명구 공대89 △강사욱 문리70 △강용철 공대83 △권성연 의대92 △권순만 치대78 △김기남 공대77 △김상태 ACAD45 △김석준 AIP11 △김용균 사회84 △김재홍 수의74 △김정규 농대65 △김태호 농대80 △김홍철 AFB9 △노형준 대원93 △문대혁 의대76 △문영학 공대65 △문철명 농대60 △박기완 경영92 △박소범 문리59 △성광재 공대81 △손정의 농대75 △송명의 AMFR24 △송호열 사대79 △승현준 ALP2 △안근일 ACAD68 △엄미령 의대84 △오복자 대원89 △이가영 사회91 △이경화 사대86 △이금문 간호90 △이성규 의대72 △이성만 사회75 △이은희 AFP4 △이호찬 敎院91 △임석우 경영81 △장지영 공대75 △전종구 문리70 △정기출 공대70 △정대현 치대69 △정성립 공대68 △정진영 법대80 △정창석 사대73 △정현경 약대83 △정흥기 공대76 △조상호 상대69 △조여홍 AMP69 △조윤신 법대76 △조재범 AIP29 △채인석 법대81 △최 광 상대66 △최양옥 음대75 △최영환 상대60 △최윤경 자연82 △최재호 공대75 △한만희 ACPM1 △허남정 인문77 △허정광 AIP19 △홍사혁 AIP41 △홍석규 사회75 △홍치모 문리52 △황영운 HPM4 △황인선 SPAR15

(일반) △강 항 자연06 △강만희 경영86 △공은희 간호89 △김문환 법대65 △김서곤 AIP11 △김연진 음대06 △김정근 의대88 △김정혜 치대84 △김종한 공대53 △김주훈 법대60 △김지현 미대81 △김창범 의대70 △남병욱 사대72 △박병욱 자연72 △박성하 법대86 △변병훈 AMFR28 △손영길 치대87 △송재철 농대88 △송종률 ALP11 △신광순 ACPM8 △안재현 인문79 △오병욱 경영81 △오찬제 사대88 △유재상 사회04 △윤서용 공대93 △윤재현 BCP11 △이남영 사대66

△이상윤 ASP10 △이영진 ABP5 △이완규 수의79 △이용환 농대50 △이재경 IFP1 △이지영 음대87 △이창윤 공대07 △이호순 AMPP13 △이홍성 문리71 △임광수 법대62 △임준호 의대08 △장성호 의대66 △정영애 新院73 △정태현 GLP10 △정하웅 자연87 △조남기 공대99 △조봉기 AMFR1 △조삼국 상대60 △지귀연 법대94 △채동욱 법대77 △전건희 생활81 △최경세 공대88 △최병하 농대81 △최창희 공대06 △허병기 사회76 △허우석 자연06 △허정의 공대91 △한병우 사대75 △한수연 간호10 △한홍렬 문리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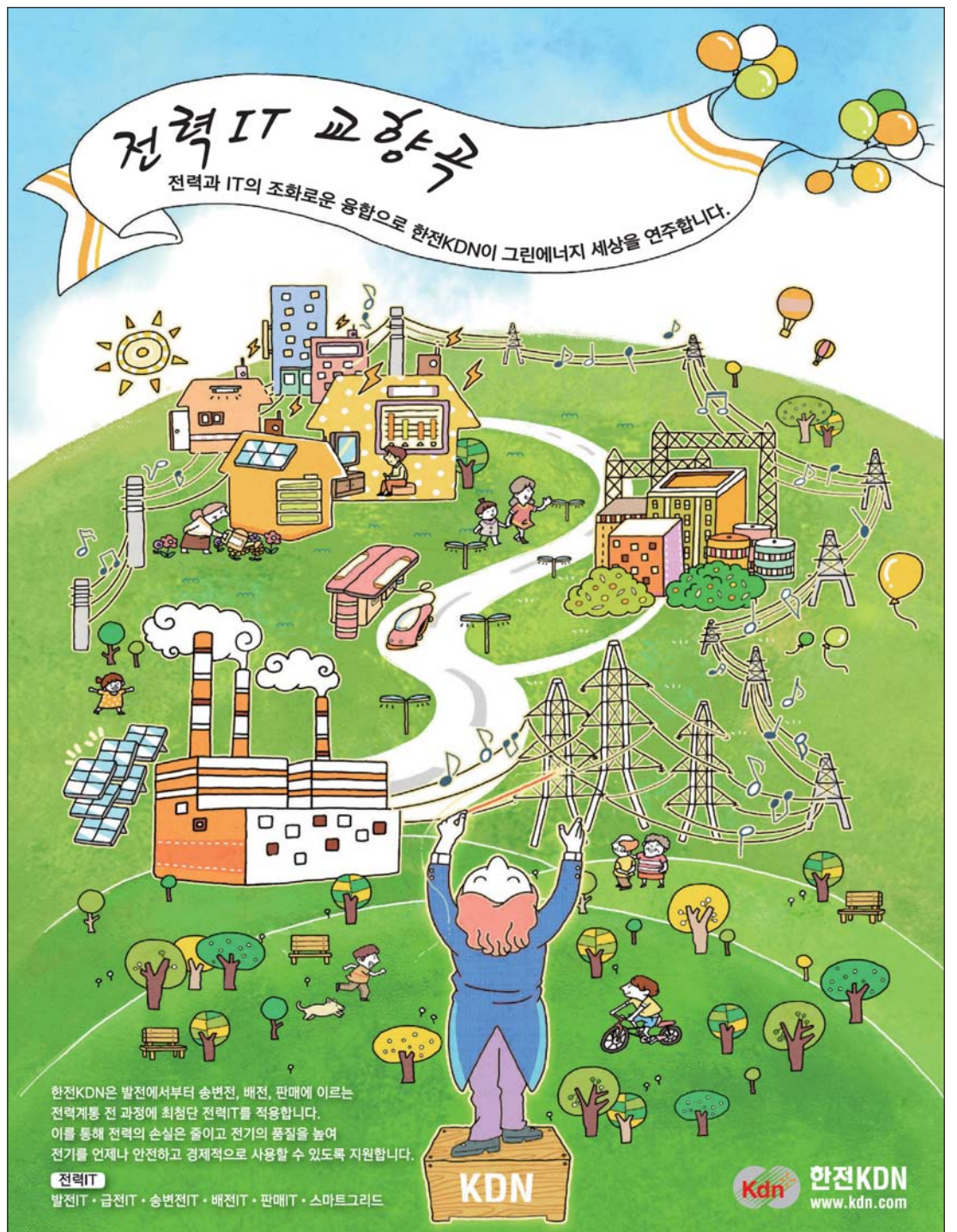
이 사

◆인문대 △강창일71 △김광현76 △김능구81 △김병철76 △류 진78 △박수현83 △손예철69 △유국환81 △이숙희80 △이영인77 △이재경75 △이창윤97 △정하연80 △한봉희77 △홍성범87 △홍종선75 △황태순78
◆사회대 △김 영79 △김광녕82 △김기준77 △김남두72 △김창균80 △김태기76 △남기섭76 △노택선79 △류성록82 △박민식84 △박병룡80 △박찬욱72 △박희영80 △오대영80 △오재석78 △이동훈74 △이목희71 △이재열80 △임유철84 △전승철81 △전홍찬79 △정봉교72 △정삼봉73 △정인익73 △정진욱87 △최범수75 △최영선77 △최익순73 △황기호77
◆자연대 △권철안77 △금중해76 △김 윤68 △박종희82 △송세안75 △이동한77 △이명웅77 △이태림77 △정민화84 △정철희75 △진 민78 △최진우75 △한만현83
◆간호대 △김명숙61 △박상연68 △성송현74 △이선자61 △정성희86
◆경영대 △강종선81 △김윤섭89 △류재욱87 △백우현74 △서정호88 △송영대69 △신동환78 △신종열90 △오선영83 △이영민83 △임기찬90 △최창목82 △황수영80
◆공대 △강경일75 △강구선63 △강창렬79 △강효순68 △강희신85 △곽병현67 △곽상철76 △권오준02 △권용원80 △김 훈71 △김경호75 △김광욱56 △김광욱62 △김남호70 △김대모61 △김덕재54 △김도심52 △김동성73 △김명수73 △김범석92 △김상훈80 △김성기80 △김성민91 △김성환66 △김순영92 △김영규76 △김영길60 △김재승72 △김종근54 △김진기87 △김진영68 △김태문70 △김학제65 △남장수64 △노철균70

△노태욱69 △문희성53 △박기현74 △박동서61 △박상수59 △박용일62 △박우규70 △박인규75 △박재룡68 △박재종77 △박종택48 △박철규87 △박태원49 △박호경69 △박효대76 △배영호63 △백성기67 △백원필78 △변동필75 △서남규69 △서영수86 △선우중호59 △성기초51 △손경업65 △송창영68 △신동준78 △신영수74 △심혜경53 △양 갑68 △양기정67 △양배근82 △여성준67 △여인선75 △여인철75 △염사연64 △오성환59 △우진태71 △유재운78 △윤 백78 △윤국노62 △윤맹현66 △윤병화58 △윤석규53 △이건우74 △이계환62 △이근명63 △이금석59 △이동준53 △이명호53 △이병기70 △이병락68 △이봉주67 △이봉환68 △이승기70

△이원세71 △이윤표77 △이정일61 △이종국87 △이태순79 △이한주79 △이홍원66 △이희승60 △임건목83 △장기욱53 △장진양67 △장진호72 △정석규48 △정순전66 △정의주68 △조광연70 △최완철69 △최재순90 △최홍섭78 △최홍영69 △하규성76 △한도석78 △한영호69 △한재성79 △하목렬70 △홍광표54 △홍민표74 △홍성완62 △홍성일66 △홍호식69 △황 철71 △황종구56
◆농대 △곽영철59 △권오준65 △권태호74 △김경미84 △김경하71 △김민수73 △김상호56 △김윤경70 △김택현78 △김풍진71 △김현구50 △김희성61 △민순홍74 △박승우67 △박영문71 △백창영69 △서기호60 △서병륜69 △손해일67 △손환규64

△심용섭70 △안수구73 △오세인55 △오승관77 △오원식83 △유 석59 △유병두73 △윤동원79 △이건일60 △이규승67 △이규재50 △이상걸79 △이성규84 △이승겸75 △이장섭52 △이재기53 △이형주81 △이희수80 △임순만62 △장영진86 △정세진70 △정일성62 △정재용79 △조한근70 △한정남65 △한태호83 △함종환63 △허길행65
◆문리대 △강승렬62 △고광용60 △구봉희62 △권혁방65 △김관식56 △김기주64 △김상진71 △김수진67 △김영일62 △김용표68 △김유승68 △김종하53 △민영기57 △박동수46 △박용안57 △박재찬71 △배성근66 △서옥식69 △송규정63 △심현철68 △양이훈65 △오원영59 △유보일60



△유양수⁵⁷ △윤호미⁶¹ △이기원⁵⁰
△이상원⁷¹ △이상직⁶⁶ △이성우⁶³
△이영록⁶⁶ △이용태⁵³ △이원홍⁵²
△이정윤⁵⁴ △이충희⁵⁴ △임의신⁶²
△임정빈⁶⁶ △임형택⁶² △장부일⁶⁹
△장흥주⁷⁰ △정연하⁶¹ △조완규⁴⁸
△지경홍⁶⁰ △진홍순⁷⁰ △채영수⁶⁸
△최 웅⁶⁹ △최홍근⁷⁰ △하영식⁵⁸
△한태길⁶⁹ △한필순⁵⁷ △허운옥⁵⁷
△홍영남⁶⁰ △황경호⁵⁴ △황인광⁶³
◆미대 △강신옥⁸⁶ △백문기⁴⁶
△성기점⁵⁸ △신수진⁹¹ △안준문⁶⁰
△이선원⁷⁵ △정종해⁶⁷ △조정송⁵⁹
◆법대 △강대석⁶⁷ △강병섭⁶⁸
△강석훈⁸² △강승준⁸⁵ △강용식⁵⁸
△강희철⁷⁵ △경우근⁶⁷ △경종철⁶⁰
△고홍달⁶⁸ △권동렬⁵⁹ △권소민⁸⁹
△권은민⁸² △기우종⁸⁵ △김경태⁶³
△김권택⁶³ △김기현⁷⁸ △김남근⁸²
△김명종⁸⁵ △김범수⁸² △김병국⁶⁶
△김봉학⁷⁰ △김상곤⁸⁶ △김승욱⁶⁰
△김승호⁶² △김영수⁷⁹ △김완섭⁶⁵
△김용환⁶⁰ △김익하⁶⁰ △김정삼⁷²
△김정학⁷¹ △김종삼⁶⁵ △김종일⁵²
△김진관⁷¹ △김진우⁵² △김진태⁸³
△김찬식⁶⁸ △김창희⁸² △김현석⁷⁹
△김흥면⁷² △명노승⁶⁵ △문효남⁷⁴
△민일영⁷⁴ △박만호⁵⁷ △박상일⁷⁷
△박성진⁸⁴ △박순백⁶⁶ △박영수⁵²
△박영식⁸⁴ △박인수⁵⁷ △박재경⁵⁷
△박정규⁵⁷ △박주선⁷⁰ △박철언⁶¹

△박충근⁶⁸ △배기운⁷¹ △배성진⁸⁹
△변 욱⁵⁷ △변동결⁶⁶ △변재일⁵⁹
△서경석⁶⁷ △서규영⁷⁹ △서정석⁶⁵
△서정석⁷⁷ △서정신⁵⁸ △성문용⁶³
△손기식⁶⁸ △송상규⁸⁴ △신규태⁵⁶
△신상규⁶⁸ △신성철⁶⁵ △신영수⁷⁰
△신현일⁷⁷ △신호철⁶¹ △안성일⁷⁸
△안성희⁶⁶ △여상원⁷⁷ △여상훈⁷⁵
△오세현⁷⁸ △오세희⁵⁸ △오진환⁷⁵
△오전석⁷⁶ △우성만⁷⁶ △유 훈⁴⁹
△유기준⁷⁸ △유병규⁸³ △윤경희⁶⁵
△윤교중⁶⁵ △윤우진⁷¹ △윤호일⁶¹
△은현호⁸⁷ △이기배⁷¹ △이덕모⁷¹
△이동명⁷⁵ △이동특⁵⁹ △이무룡⁶¹
△이상규⁹⁰ △이상우⁵⁷ △이상진⁷⁰
△이성웅⁶¹ △이세장⁵⁷ △이용우⁹²
△이재근⁸² △이재순⁷⁷ △이재철⁷⁷
△이정훈⁸⁹ △이진배⁶⁵ △이충범⁷⁸
△이태운⁶⁸ △이현옥⁷⁸ △이효종⁵⁹
△임내현⁷¹ △임성규⁷⁶ △임종식⁷⁹
△임한홍⁷³ △전명호⁸⁶ △전병식⁷⁰
△전용희⁸¹ △정경택⁷⁰ △정광우⁶¹
△정기용⁷⁷ △정대권⁷⁵ △정덕흥⁶⁸
△정연조⁵⁵ △정용달⁸¹ △정호영⁶⁶
△조남대⁸³ △조남욱⁵³ △조동주⁵³
△조문부⁵⁵ △조해근⁷⁸ △조해현⁸¹
△주석영⁷⁹ △주우식⁷⁸ △지성우⁶⁶
△지흥원⁵⁸ △채 윤⁷⁸ △최병룡⁵⁶
△한경국⁵⁷ △한승희⁵⁵ △함영업⁵⁷
△허영범⁸⁸ △현순도⁶⁶ △현홍주⁵⁹
△홍경식⁷⁰ △홍진태⁵² △황보경석⁵⁰

△황선태⁶⁶ △황영선⁵⁵ △황영하⁵⁸
△황이연⁵⁵
◆사대 △강기창⁷³ △강영삼⁵⁹
△고영신⁷³ △곽형기⁷¹ △곽후섭⁵²
△구본형⁷⁵ △구성희⁵⁵ △김경자⁷¹
△김덕호⁷³ △김상규⁶⁰ △김승재⁷¹
△김영진⁵¹ △김재성⁸² △김재호⁵³
△김종원⁶¹ △김종찬⁸⁷ △김찬규⁵⁴
△나민주⁸⁵ △민흥기⁵⁹ △박영미⁷⁵
△박형준⁶⁰ △방재욱⁶⁸ △설동균⁶⁸
△송광섭⁷⁷ △염영주⁶⁶ △오두범⁶⁴
△오윤용⁶⁰ △오창훈⁸³ △유덕준⁶⁰
△유영채⁷⁰ △윤규태⁶⁵ △윤재봉⁵⁶
△이규석⁶⁶ △이기준⁶⁷ △이노연⁵⁸
△이동식⁷² △이상락⁶⁷ △이영길⁸¹
△이원호⁶⁸ △이주연⁷⁹ △이찬근⁷⁴
△임향순⁶⁰ △정귀생⁵⁸ △정영수⁸⁴
△정응근⁶³ △조경오⁷⁵ △조용복⁵⁵
△주운수⁶⁶ △최병순⁶⁹ △최영상⁵⁶
△최희유⁶⁸ △홍석영⁸⁵
◆상대 △구영보⁶⁹ △권영식⁶⁶
△권혁성⁵³ △김경모⁶¹ △김녀명⁶³
△김덕기⁵² △김성규⁵⁷ △김영준⁷¹
△김창달⁵³ △김창진⁵⁸ △김철영⁷⁰
△김하두⁶⁴ △남영태⁶⁵ △문영도⁵⁰
△박종민⁶⁴ △박태하⁵⁸ △박해룡⁵⁸
△배홍규⁵³ △변병주⁶⁰ △서승원⁶³
△서정도⁶⁶ △선종승⁷¹ △손재환⁶⁹
△신해철⁶⁹ △심재엽⁶³ △염수명⁶¹
△우순구⁵³ △우찬목⁵⁵ △유석렬⁷⁰
△유석홍⁶¹ △윤우진⁶¹ △윤종현⁴⁴

△이동혁⁶⁵ △이상득⁵⁷ △이세균⁶³
△이승웅⁶⁰ △이용휘⁶⁷ △이윤우⁶⁸
△이태형⁵⁹ △이한희⁵⁴ △전문준⁶⁴
△전종환⁵¹ △전창수⁵⁷ △정 용⁶¹
△조영삼⁷¹ △조원구⁶⁴ △차태균⁷¹
△최경식⁵⁹ △최남식⁵⁹ △최명해⁶⁸
△최행주⁶⁶ △표학길⁶⁶ △한도형⁶⁹
◆생활대 △송운주⁹¹ △정영진⁶⁸
◆수의대 △나기식⁵⁴ △나종극⁵⁴
△박성권⁷⁴ △박재학⁷⁷ △신현일⁵⁷
△윤화중⁵⁴ △이 준⁶² △이각모⁶⁴
△이도필⁴⁹ △정용근⁶⁷
◆약대 △김기술⁷¹ △김길수⁶⁰
△김상조⁵⁴ △김선준⁶¹ △김수경⁵⁷
△김태근⁷¹ △김효중⁷¹ △박대창⁶⁹
△송창진⁵⁴ △신형근⁷² △심우원⁷²
△양현하⁶⁶ △오연준⁵⁶ △우중근⁶¹
△유태숙⁷² △이세영⁵⁷ △이용연⁷²
△정영진⁶⁹ △주승재⁸⁶ △최명식⁶⁴
△최진근⁷⁷ △허 상⁵⁸ △홍성한⁷⁶
◆음대 △강덕원⁶⁹ △강영목⁷⁷
△김용희⁸¹ △김혜중⁶⁹ △남지현⁸⁵
△손국임⁶⁴ △신혜정⁸² △이명희⁶⁸
△이서현⁹² △이선아⁸⁴ △이승현⁸⁷
△이재숙⁵⁹ △이종길⁸⁵ △이준성⁸¹
△최승준⁶⁵ △허주화⁷³ △황응준⁸⁷
◆의대 △강세윤⁵⁹ △고건성⁶⁷
△고원순⁶⁸ △김민석⁸⁴ △김기락⁶⁸
△김기영⁵³ △김성오⁸⁷ △김영근⁴³
△김용봉⁷⁰ △김인호⁷¹ △김종환⁵⁰
△노문진⁹⁰ △노충희⁷⁰ △맹국영⁶⁸
△문태준⁴⁴ △박노현⁷⁸ △박동현⁷⁰
△박소배⁷² △박영태⁷⁰ △박이태⁷²
△박주배⁶⁸ △박호진⁷² △방성호⁶⁶
△백태진⁷⁴ △서동희⁸⁸ △손근찬⁵²
△송영주⁷⁴ △양성범⁷⁵ △오승환⁵⁶
△유경상⁶⁴ △유지문⁵⁴ △유현덕⁷⁷
△윤유석⁹² △윤준기⁹³ △이갑순⁵⁵
△이건용⁶⁹ △이기석⁹² △이대규⁶³
△이부영⁵² △이윤호⁶⁸ △이정길⁶³
△이종호⁸¹ △이종원⁷⁶ △이태연⁹²
△임태환⁷⁰ △장성근⁷¹ △전성환⁷⁴
△전형식⁸¹ △정동철⁵⁴ △정두용⁷³
△최동수⁵⁴ △최세준⁵³ △최인호⁷⁰
△한덕종⁶⁹ △한병채⁵⁸ △한진희⁷¹
△함돈일⁸⁴ △허준평⁷⁰
◆치대 △구본석⁷⁸ △권오균⁷¹
△권오양⁷⁴ △김 일⁵¹ △김경남⁷²
△김병찬⁶⁹ △김봉호⁵⁶ △김영철⁶¹
△김정현⁷⁷ △김정욱⁸³ △김천식⁷¹
△김현풍⁶⁰ △김홍석⁵⁹ △김휘철⁷⁰
△목성규⁸¹ △박명종⁷⁹ △박승범⁶¹
△박용준⁵⁴ △박찬우⁶⁵ △방수남⁶²
△백성기⁷¹ △백승진⁷⁵ △서성규⁷⁴
△석창인⁸¹ △손일수⁷¹ △송재용⁸²
△신동인⁷⁶ △안건모⁸³ △양일수⁷³
△양재호⁶⁴ △연태호⁸¹ △오세웅⁹⁰
△유기준⁸⁶ △유태영⁶³ △윤동호⁸⁰
△윤학영⁶² △이민선⁶⁶ △이병우⁷⁶
△이봉재⁵⁶ △이상재⁷⁵ △이승종⁶⁹
△이시우⁵⁹ △이원재⁷² △이준규⁶⁶
△이창룡⁷⁰ △이형규⁵⁷ △임종수⁸¹
△임채균⁵³ △전태수⁵⁶ △정관서⁷⁹
△정호길⁷¹ △조형작⁶⁴ △진윤수⁸⁰
△하재식⁹³ △현기용⁷⁷
◆대학원 △권병남⁸¹ △김경진⁸⁴
△김기혁⁸⁵ △나병만⁷⁷ △박성호⁹⁵
△박영득⁸² △원상봉⁸³ △이광재⁷⁸
△이종우⁸⁴ △지종수⁷¹ △하두봉⁵⁶
△황철용⁹⁶
◆경대원 △김정태⁶⁸ △김한준⁸⁹

△양승현⁷¹ △임인규⁸⁸
◆보대원 △권혁한⁷⁵ △신석우⁶⁵
△정두채⁸⁰ △정상호⁹⁹
◆사대원 △석용진⁶⁵
◆신대원 △김우룡⁷¹ △김희목⁷⁶
△유일상⁷²
◆행대원 △공병영⁹⁰ △구기성⁸⁹
△권기성⁷⁷ △김익영⁶⁸ △김인동⁶⁵
△남호현⁸² △양석호⁶⁷ △정영섭⁶⁶
△최상철⁶⁴
◆환대원 △권 완⁷⁶ △김제성⁷⁸
△박형석⁷⁴ △사공호상⁸⁹ △양언모⁸²
△이만의⁷³ △정양희⁷⁹
◆AMP △고은봉³³ △권점주⁶⁵
△김상훈⁶⁸ △김영도²³ △김주한⁵⁰
△김진섭⁹ △김판진⁵³ △김홍래³⁶
△서 구⁴¹ △송원중⁶³ △송학성⁶³
△신용무²⁶ △신지윤⁶⁶ △심계진³⁶
△양성욱¹ △유대운³⁷ △유병운²³
△유재천³¹ △유진석³² △유해준⁴⁰
△육신학⁵⁷ △윤종호⁴⁸ △이병구¹⁶
△이원구⁵⁰ △이윤로⁵⁰ △이용표³⁶
△이재형⁵⁹ △이정훈⁵⁴ △이주현⁴⁵
△장기홍⁸ △정영대⁴⁸ △정환진⁴⁷
△조병호⁵⁶ △지대섭⁵⁶ △차문현⁶⁷
△한종희²⁸ △허덕행² △황의영⁵⁹
◆AIP △김서규⁴⁰ △김성길⁷
△김영식³³ △김용태³⁰ △김장근¹⁵
△김종필⁴⁰ △김후근¹⁷ △박봉식¹⁶
△박병철⁴¹ △박양신²⁰ △박영구³¹
△박영기²⁹ △박용진³⁵ △박종호⁹
△서영복¹⁹ △손광열⁹ △양 명⁹
△오태호³³ △윤명수³⁰ △윤여순²⁷
△이갑순⁹ △이덕영²³ △이득춘⁴⁰
△이상희¹⁵ △이종호³¹ △임한복²¹
△전종윤¹⁰ △정동진²⁸ △정봉성²⁹
△정창현²⁰ △최정남²²
◆ACAD △강동화⁶⁸ △권영호⁶⁰
△김우연¹⁴ △서찬교⁴⁰ △신은우⁵⁶
△유내형¹⁷ △이강국⁶³ △이상영⁴⁰
△이치윤⁵⁷ △전 홍⁴⁸ △전병순⁴²
△정시채⁹ △최형태⁶⁸
◆ABP △김선제⁹ △김영근¹⁵
△김정탁²³ △류광하⁷ △박준명¹²
△심형보¹⁶ △이상태²⁴ △이수연²³
△이판철³
◆SGS △김수근² △김제남¹⁹
△김희철¹² △원홍순¹⁵ △이래원⁶
△임경보¹¹
◆APC △이용배⁵ △조갑환⁹
◆HPM △권기진⁸ △김광화⁹
△김민규²³ △김홍구¹² △노동일⁷
△배영봉¹⁴ △이석기¹⁴ △이정희¹²
△정지문¹⁴ △최종환¹⁰ △황영집²⁶
◆AMPP △김종민⁴ △류귀식⁷
△송실광⁷
◆AIC △김동현²⁵ △백재현⁴
△송호룡¹⁹ △이경의⁵ △이일로¹
△이정재² △조정구⁸ △최세근⁹
◆AFB △방운석¹⁰ △이동락¹
△이혁환⁹ △정일진¹⁰
◆AMPFRI △강정목⁹ △권 순⁴
△김일동⁸ △김정훈¹ △백두철⁹
△한기영³
◆ACMP △강현찬⁶ △권오봉⁶
△김범용⁶ △박찬의⁷ △이종수¹
△탁병열³
◆FIP △양태운⁴ △우영대⁷
◆GLP △강창석¹⁴ △금상연¹⁹
△김경식² △김용태¹⁷ △서승욱¹⁹
△신명진¹³ △윤여표¹¹ △윤재호¹⁴

대우주학 대자연과학 대인류학의
공통분모학과 성공의 공식학으로 구성 집약된

원천의학

속전 속결 속효
법의 여타 의학
의 대조 무비의

원천의학

각종암, 백혈병, 뇌종양, 치매, 우울증 등의 난치병 치유법과 자격증획득 화목한 가정과 사업의
활성화를 내방 상담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 의학과 사업이 동시에 성공하는 대우주 대자연 대인류의 공통분모학으로 성공합니다.**

IMBC, 케이블TV, 위성통신방송, 출동VJ세상속으로 방영



***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책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CEO에 장점극치!!**

* 창업, 부업, 가정의, 프리랜서, 취미, 봉사

자격증 수여교육

* 부진사업 활성화에도 원천의학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최고위급 원천의학은 의료기관장, 전문의, 임상의학자, 기업단체장, 공무원,
자연의학, 대체의학관계자, 목회지도자, 심리치유사, 교육지도자, 박사, 교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계 종사자, 연예인, 일반인 등 이수하신 분 다수, 계속
입문을 환영합니다.

(1) 원천의학은 ① 학문의학(Medical Science) ② 미래의학(Future Medical science)
③ 무한의학(Infinity Medical Science)

무료공개강좌일시(좌석예약바람 ☎(02)511-0341)

* 1차강의 : 2013년 7월 17일(수) 14:30 * 2차강의 : 2013년 7월 18일(목) 14:30
* 3차강의 : 2013년 7월 19일(금) 14:30 * 4차강의 : 2013년 7월 20일(토) 14:30

(社)源天醫學財團
社 會 源天醫學大學 ★통신강좌도 실시합니다. ★대학 : wcmc.kr ★재단 : www.power12.co.kr

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9번지 라이온스빌딩 609호(중부서 극동빌딩 옆)

지하철 2호선 8 : 을지로3가역 11, 12번출구 7분 / 3호선 : 충무로역 5번출구 5분 / 4호선 : 명동역 10번출구 3분 소요

△이석형12 △이준형5 △한충권20
◆ALP △백정기6 △손용근6
△좌상봉12
◆ANMP △엄옥봉1
◆SPARC △권세원16 △김달수1
△이덕록7 △임석우19 △정삼진18
△최승수12
◆ASP △오성환6 △채수철15
◆IFP △한민석3
◆BCP △권영진6 △최무순3

일 반

◆인문대 △강지연03 △강태승03
△김 영88 △김성환06 △김소희02
△김영인83 △김윤미07 △서선령87
△성기혁06 △송재봉72 △신형철95
△심윤남82 △심재우86 △안정민03
△이민주06 △이선주97 △아아베스07
△이용진05 △이인서95 △이재학82
△장수현98 △정지원03 △조현명08
△진지은05 △최완석98 △최희중10
△한상희83 △함혜선06 △홍주영99
△황효성02
◆사회대 △강성두78 △고희경 05
△곽기병04 △권용신86 △권철원03
△김 선07 △김대규07 △김동진88
△김법정86 △김병규05 △김석기78
△김영생81 △김일권03 △김태호86
△김혁래98 △김홍석83 △박순일00
△박종철90 △박호준00 △배종하75
△백두현82 △변동희73 △서의근81
△송광조80 △신병주03 △안상함77
△여지윤08 △원영준90 △이광오73
△이기범03 △이동현05 △이상훈11
△이선아97 △이세준82 △이수민07
△이승훈02 △이용봉85 △이종선87
△이진녕78 △이찬복98 △이창수85
△장윤정03 △장희경07 △전상현91
△정국환73 △정용진98 △조동호92
△조윤지08 △조재근04 △조재민06
△주병기89 △최창희03 △최형근69
△한창욱92
◆자연대 △강문기68 △고민섭03
△김광영86 △김병수74 △김성환00
△김용규06 △김준식91 △김지수03
△김진복74 △김한결11 △김희웅83
△박희망10 △서민석02 △안득수02
△윤다정11 △윤상은07 △이동우08
△이미선08 △이소영08 △이원석05
△이정엽88 △이철현82 △임은학03
△장원석96 △전동오84 △전용호75
△정 황72 △정용준01 △정지혁07
△정태현91 △조성일92 △최나락98
△최승주72 △최지한87 △추성엽75
△한지형07 △허재영05 △황인환02
◆간호대 △권오겸56 △김기자56
△김기희65 △김재희84 △박현자63
△유순애74 △윤미여76 △임미현03
△장예환58 △전귀능83 △정민경08
△조결자62 △최영희65 △태영숙71
△현정희84
◆경영대 △강태웅79 △고두형01
△김운호88 △김은집03 △김형태81
△노진만83 △모영철88 △문홍장74
△박민주06 △선상엽03 △안태진06
△이상수73 △이선화04 △조형수99
△표현덕96
◆공대 △강민정11 △강상우03
△고근희54 △고순민98 △고항규68
△공석봉51 △곽한우73 △구본현73

△구자영67 △구정모93 △권봉일69
△권오동69 △권혁일96 △김경민02
△김광일56 △김대웅61 △김동구70
△김동규58 △김병남73 △김병진50
△김병훈98 △김상규59 △김상식58
△김상원94 △김석철62 △김성민99
△김세진47 △김세환61 △김수웅60
△김신태63 △김원석10 △김재봉69
△김재업87 △김정원63 △김정인94
△김정혁00 △김종민68 △김종철73
△김종현72 △김주찬75 △김창락78
△김철규65 △김철순53 △김철흥05
△김태경89 △김태문55 △김태환66
△김택중56 △김학기50 △김한규74
△김현구07 △김희령86 △남광문61
△남기동43 △남영태60 △노홍조48
△리종민05 △류재룡07 △류종희53
△류지현92 △민병진43 △민철기56
△박기철72 △박동재51 △박병장68
△박세영95 △박승균63 △박용기71
△박이관58 △박종식70 △박주현07
△박지성03 △박지형03 △박진모07
△백사익40 △서세현65 △설재훈92
△성호용03 △손지호02 △손택만82
△송기선03 △송미화02 △송재국52
△송정우08 △송화정11 △신상묵73
△신상재11 △신현식50 △심재복08
△안정기03 △안정욱02 △안준규01
△안학수50 △양동률50 △양준모85
△오동익89 △오영환68 △오일영89
△오창국92 △오희근81 △우경호78
△우종민97 △유병욱81 △유승현99
△윤남진53 △윤남하51 △윤여경48
△윤정묵63 △윤창기03 △윤혜림87
△이경훈99 △이규생57 △이균상62
△이근환05 △이기설47 △이기화53
△이덕락78 △이미지03 △이법철65
△이복영55 △이상욱05 △이상윤03
△이석규57 △이성기58 △이연주93
△이영우58 △이요한07 △이원구85
△이원복50 △이인희56 △이재국06
△이재욱97 △이정국62 △이정근77
△이종규57 △이종삼67 △이종철06
△이진열70 △이창복56 △이태경10
△이태민85 △이현순69 △이현웅01
△이호현51 △이호준08 △이희발72
△임일택84 △임종현04 △임현용69
△임형준04 △장경욱95 △장대현08
△장동현10 △장령수99 △장연국10
△전기명60 △전문휘53 △전영동05
△전정규06 △전현철07 △정석현51
△정의진08 △정인수73 △정재준90
△정진수67 △정형식08 △조득호66
△조봉현10 △조사홍56 △조영선63
△조현재07 △조형래58 △주익철89
△진희철07 △차건호03 △채수장62
△최갑주06 △최규언58 △최수홍06
△최인영63 △최종민01 △최현수85
△최호근83 △한겨레08 △한장원11
△한창석68 △한현선97 △허광엽05
△현익환82 △호영철58 △홍성범56
△홍성우08 △홍성철87 △홍용균52
△황재광57
◆농대 △강인목54 △곽은주97
△구회진04 △금방용85 △김두식55
△김문수54 △김민기57 △김봉규82
△김봉수50 △김삼식53 △김상도70
△김상후64 △김영규51 △김영조82
△김이기80 △김재영94 △김재윤64
△김재은84 △김재민62 △김재홍57
△김정곤72 △김종성55 △김종운82

△김주용08 △김준평48 △김한석66
△김형립03 △김현주03 △김현호84
△니병용69 △남궁수70 △남영우53
△노규식76 △노진표55 △류남렬50
△류제민04 △민동영07 △민선홍58
△박 호59 △박동우70 △박상순86
△박숙규48 △박양문55 △박재모05
△박재욱59 △박진화57 △박창호58
△박한수82 △박형훈55 △박혜진07
△백유현55 △변양석59 △서성원93
△성우경50 △손광훈62 △송계원45
△송기덕55 △신민종79 △신상혁56
△심상우57 △안승요51 △양동섭90
△양준웅63 △염태영53 △오정행60
△오희정57 △우현아10 △유광일66
△유근학55 △유서호94 △유영상10
△유진춘67 △이강남61 △이경용53
△이광선57 △이두환75 △이민정03
△이병전55 △이상직56 △이수봉57
△이시규73 △이용준90 △이원희50
△이종현80 △이준원81 △이중훈48
△이춘녕36 △이택규63 △이형주77
△이홍복56 △이홍석52 △임동준60
△임성빈57 △임성빈57 △임용섭87
△임철홍11 △장세종66 △장정식61
△전석수62 △정돈철68 △정무남62
△정민섭59 △정선자62 △정용복51
△정춘희57 △조규탁86 △진영호66
△최동아06 △최영일46 △최원개50
△최유지97 △허맹중58 △한기학52
△한석현52 △한정수51 △한준연52

△한태수65 △황재문69
◆문리대 △강영원70 △고인석56
△기우탁57 △김계란52 △김광규60
△김기근69 △김동일58 △김명환61
△김수춘54 △김영성62 △김용달57
△김윤철67 △김일송63 △도홍길61
△박용배59 △배인하59 △배정룡53
△변광수65 △서인수50 △소광희53
△송길상48 △신장효59 △신현식56
△안남순54 △안화영47 △양 원55
△오권태56 △오현승65 △유병길68
△이 강56 △이영훈65 △이재승59
△이종무58 △임채호58 △장종학59
△전종현55 △정기호50 △조 흥66
△조성균53 △조성술53 △조영길58
△조원홍71 △조한무62 △주혜경68
△최동환49 △최승규67 △최인일68
△하인경66 △허두표60 △현영욱67
◆미대 △길호관74 △김경애68
△김영화81 △배경희02 △심차순57
△유영일83 △이길종60 △이성경08
△이운식56 △정상원58 △정선화56
△정정자60 △정치환60 △차정화05
△최은규77 △홍순무54
◆법대 △강병연57 △강석균50
△곽창욱58 △권종철77 △김 신76
△김국열92 △김규연61 △김기경85
△김기동83 △김병문62 △김병호82
△김선병81 △김선중70 △김성배73
△김양섭90 △김영규57 △김용재83
△김윤규51 △김재규49 △김재규57

△김재기68 △김재정82 △김종성67
△김진병85 △김태훈68 △김학근75
△김현민61 △김혜수07 △김호철85
△김호현61 △노창호54 △문정두60
△박상선63 △박상형48 △박세철51
△박재현00 △박종국65 △박종태84
△박준범08 △배용원86 △백보윤61
△백영철68 △백주현52 △변희찬78
△손관호51 △손석주55 △손지호82
△송재현60 △송진현71 △신원도87
△신종현69 △신주희08 △신진민60
△신현무58 △심훈종56 △안재식57
△안창수52 △안해연07 △양정일87
△오권철92 △오대혁84 △오영상82
△오정돈79 △우익원54 △원은섭63
△유병순55 △유태길53 △윤성근78
△윤우정61 △이 흥62 △이강병64
△이대영58 △이대우67 △이성규92
△이순복54 △이승주05 △이승환55
△이재성78 △이종문56 △이중훈78
△이태희58 △이한구57 △임승관70
△임승언56 △장홍선84 △전병덕47
△정광욱06 △정극수55 △정서용05
△정준영85 △정태용95 △조병직46
△조석래51 △조성기68 △조주운56
△지원훈61 △진혜인08 △최규홍80
△최기선64 △최중현59 △하성대49
△한상근02 △한승철82 △호영진56
△홍일표63 △홍종현64 △황성재72
△황성진66 △황종우86
◆사대 △고경순61 △고무송65

www.twayair.com

가장 저렴한 하늘길
티웨이가 함께합니다
It's time to fly with t'way



티웨이항공
티웨이는 저렴한, 행복한 하늘길을 책임지는 국내 항공사입니다.

정기편 김포-제주(매일) / 인천-방콕(주 5회) / 인천-후쿠오카(주 9회) / 김포-타이베이(송산)(매일)
부정기편 인천-산야 / 인천-석가장 / 제주-천주 / 제주-광저우 / 제주-창사

예약문의 1688-8686



△고웅섭54 △권문환74 △권정순59
△김명수68 △김문수71 △김보호68
△김선주76 △김승배80 △김유명69
△김인숙58 △김재은50 △김정웅65
△김종옥39 △김종우54 △김종화68
△김증자61 △김혜경65 △김혜선02
△김혜우64 △김혜정85 △김환수03
△김희분50 △남규이41 △남기중54
△남유선04 △노지영82 △문정환59
△민영업55 △박동근62 △박병윤65
△박희동75 △변재용59 △변희준53
△서인경51 △서태근56 △손옥호72
△신각범54 △신일용78 △신진희87
△심숙주74 △안규철58 △양흥룡71
△유규상05 △유소희06 △유자호68
△유택상03 △윤석원68 △윤종훈06
△윤혁준04 △이광열56 △이광용61
△이규환46 △이동환97 △이승우61
△이승우62 △이영윤58 △이용덕71
△이윤하63 △이재만52 △이제용60
△이주호07 △이진석75 △임상순60
△임효숙81 △전경옥58 △정보미06
△정봉섭65 △정수옥76 △정신화71
△정은실74 △조익선40 △조혁중78
△최영림76 △최정숙44 △추연화62
△히봉옥62 △한지희08 △홍종봉54
△홍현선94 △황남택64
◆상대 △강경만54 △강상기53
△고학모56 △곽영홍57 △권기봉54
△권영진58 △김규석55 △김상열64
△김선정54 △김영무56 △김용민70

△김유일53 △김윤재53 △김이규50
△김종서58 △김주호50 △김태구59
△김한오53 △김형주51 △김홍배63
△나웅배53 △민병태58 △박동순57
△박상효63 △백기덕58 △백기환53
△변원옥49 △서병태63 △손성철50
△손흥근54 △송인구59 △송인상35
△송재관66 △송정위60 △신문철52
△양재욱53 △오기화57 △오상봉70
△왕연근61 △우상섭53 △우일근50
△위봉택62 △유명희57 △유재윤68
△유재홍68 △윤정희54 △이계식56
△이규찬55 △이동원51 △이동재54
△이봉길58 △이상호57 △이성희70
△이영호46 △이재환62 △이태중50
△임한석59 △전장원56 △전창기57
△정상용61 △정택수53 △정하용65
△정해운46 △정희경60 △조성일62
△조흥원64 △채수한56 △허남린53
△홍구희57 △홍동진48 △홍성표59
◆생활대 △김나연94 △김세리03
△김예지08 △김은하06 △최재영07
△김남미73 △류국영84 △박문학60
△오경숙82 △이성란83 △임정빈57
◆수의대 △고성옥57 △고주영65
△김남식83 △김명석08 △김영목51
△김용대63 △김정훈62 △김지나03
△김진영60 △김태희58 △남규민03
△노상석65 △박양기56 △박유순63
△신래섭56 △안수경00 △원병희60
△유승창63 △윤태걸58 △이 완82

△이강석74 △이생근78 △이시현03
△이원철74 △한인식64 △홍성근76
◆약대 △권창호47 △김길수50
△김병규68 △김삼영58 △김영준58
△김용정58 △김원선54 △김장숙58
△김학균51 △문창규59 △박태선04
△서성수53 △송순자60 △양승국53
△옥치완55 △이계준64 △이삼수80
△이영경81 △이재호72 △장봉수61
△정원장05 △정진남60 △홍순태67
△홍우일61
◆음대 △권혁남58 △김금수76
△김영숙85 △김영희53 △김지윤93
△문영애65 △신윤식69 △오동일54
△유화자59 △윤기숙82 △윤완옥62
△이근택63 △이영자56 △이정현97
△이효순63 △장창환58 △조윤경91
△조혜정08 △최영택74 △한태원73
◆의대 △강내열56 △권선주94
△김 윤62 △김경국73 △김내준49
△김동윤76 △김종박59 △김희경08
△문예지08 △박수영05 △박한철53
△변종훈69 △서동인97 △설보람06
△유형록57 △윤여규75 △이덕수55
△이동규77 △이방제57 △이언복52
△이은혜74 △이의돈61 △이인영51
△이재식81 △이창원85 △임승재75
△임형석81 △전동수44 △정 석04
△정준형03 △정항보81 △정해철76
△조남혁70 △조민현03 △주진순43
△진정옥93 △차명진01

◆치대 △강신구65 △강강주79
△강공배58 △강기홍75 △강민석56
△강명효75 △강문기66 △강종렬73
△강필일72 △강학선80 △문정광61
△문창남58 △박상규03 △박용학58
△상기중51 △서운석72 △성영환59
△소병선73 △심정민87 △안복훈80
△용호택67 △이경우71 △이규철64
△이수연00 △이승민88 △이원철63
△이재호80 △임형우57 △정윤석73
△조상래83 △조상용94 △하상완64
△한광수72 △함병도75
◆대학원 △강경규81 △권부섭81
△김선대84 △김우식66 △김진수83
△김현택82 △모수미75 △박명호89
△박미경93 △서수원89 △선양국85
△손총기79 △안혜경00 △이수형78
△이정태82 △이종규88 △조준수86
△토토쿠니01 △한성수80 △허도학83
◆경대원 △박준석66 △신인철68
△이승주93
◆법대원 △주준하03
◆보대원 △박상옥04 △방옥균85
△신학균60 △오세민67 △유희종00
△최용어67 △카메야마10 △허인남80
◆신대원 △이민희73
◆의대원 △송진화03
◆행대원 △강남구08 △강훈철80
△그 렉10 △김광림80 △김선태90
△노선호68 △박명도11 △박상돈84
△박정택76 △설근태88 △이보람08
△이상설65 △이석완78 △이원기67
△임세환71 △조은채06 △홍현선77
◆한대원 △박종준03 △송슬기10
△이동관03 △려 완74
◆AMP △강은채44 △고윤재20
△공희식72 △구광길33 △김 호55
△김경덕18 △김경환31 △김관수61
△김수길27 △김태웅48 △박건현70
△박민우73 △박종구21 △박찬엽40
△서재희25 △서철봉33 △손재환48
△신태범5 △안두수73 △안윤수74
△오연수4 △우병일74 △우정목37
△유승배74 △유시종19 △이상권74
△이상택40 △이성철12 △이영주5
△이재환48 △이진선36 △이찬복67
△정 열14 △정용근45 △정재성7
△조용선36 △조인수74 △진성섭10
△최병면41 △최세필54 △황학수27
◆AIP △고형석21 △김수기14
△박승옥21 △박양수46 △박영목38
△박정요16 △박종우6 △박지홍46
△송태진22 △이동명42 △이두정48
△이창범22 △장희전20 △전인근48
△최득호48 △최용길22 △한동엽48
△한옥문45 △황구연38
◆ACAD △김동찬18 △김옥채75
△김호연11 △노희식38 △박시영74
△박용암43 △안승우38 △안효원45
△윤기섭53 △이연수72 △이종우63
△전형일12 △황보성57
◆ABP △권금자23 △권준학30
△김우진34 △박성관26 △박형규20
△심상렬23 △양병기30 △윤해진29
△이무성38 △이현구39 △임경상9
△황세영37 △황승환30
◆SGS △김기문26 △김명수2
△김호영2 △박정희13 △안영대22
△이창복13 △임영화27 △최원오26
△최호운18
◆CHCN △문순자11

◆APC △강상기11 △권정민13
△권혁면18 △김원택12 △박동기16
△배홍봉18 △신현용17 △유형태14
△이동백15 △이영세4 △이용운13
△조주현18 △홍기만3
◆HPM △권도연29 △김명숙29
△김재선29 △김중기21 △김창성23
△김형운29 △박원빈29 △안영미28
△엄금량14 △유근일29 △이구봉29
△이선화29 △이승표29 △임동호10
△임일규1 △장동환29 △정 욱29
△조동순27 △조춘성25 △최낙원16
△하우형29 △한상섭12 △한상환29
△한성길16
◆AMPP △권택훈13 △김기웅12
△김창규11 △박홍남13 △손명호12
△양은희7 △이성현12 △조현국12
◆AIC △강철호34 △왕진원11
△이영길34 △이한범33 △조강연30
△조현호32 △최인환34 △한수연32
◆AFB △김병관12 △김재명7
△박천희4
◆AMPFRI △고원선26 △신도범7
△전문환29 △조기조4
◆ACMP △가재유9 △김금용9
△김원경9 △문성호9 △박세원9
△박용환9 △박준영9 △신선우9
△오인환9 △유완상9 △이경범9
△이규석9 △이신재9 △이정휘9
△이종명9 △이호창9 △조성래9
△조종수1 △하순기9
◆FIP △박성환9 △신인식9
◆GLP △강한석26 △김은호25
△김춘식26 △남호동20 △노길환26
△민형기20 △박삼수24 △이기호26
△이우영24 △이효승26 △이희명26
△임종호11 △임채룡26 △정동훈20
△최성덕21
◆ALP △김 오16 △김민성16
△문훈숙12 △성기영17 △손창환17
△심의경17 △여용동14 △유득상17
△이영진17 △이재일17 △이학범14
△임영철5 △장석산9 △장세영1
△정기환6 △주경섭16 △최성우11
△한충섭17
◆SPARC △김영석5 △김태근6
◆AFP △강용희11 △강홍구11
△민복기11 △박철수11 △양오승11
△최외홍11
◆ASP △김상근24 △김시화24
△김영봉23 △김주환24 △김희창24
△배동기20 △신종환24 △염조일15
△이 범18 △이명영24 △전귀상24
△진영호20
◆IFP △이승득1 △조진영4
◆BCP △남 인11 △박상원10
△신철수9 △최성원2
◆ABKI △김진학2 △도종성3
△박건용3 △박점순2 △여명관3
△오기성3 △이현성1 △임문숙3
△최명숙2 △최영만3 △최은철3
△최인숙3 △최창욱3



건강에 대한 열정은 약속—
김정은 책임정신으로 만듭니다.

주/김정문알로에
HWA JONG MOON ALLOE CO., LTD.

이땅에 처음 알로에를 심은 기업, 김정문알로에
진실을 사명으로 38년을 달려온 김정문알로에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합니다.



김정은 유베라겔에이디200 알로에겔



김정은 알로에센스 알로에전잎



김정은 슈퍼그린베라 알로에겔분말



김정은 프리미베라-겔



차미온 이온수기

2013년 5월	
연 회 비	48,330,000
평생회비	46,800,000
입 회 비	1,020,000
계	96,150,000
2013년 누계	616,172,00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제10기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 《인간의 삶에 결을 더한 인물과 글 30선》

I n F u t u r u m P r o g r a m

데 카르트 이석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 (11월 6일 강의)

생각하기에 나는 존재하고, 공간적으로 펼쳐져 있기에 자연세계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이원론(二元論)이 당시의 시대적 고민을 어떻게 해소했고, 대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는지를 같이 '성찰'해보고자 한다.

모두의 노래 김현균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10월 16일 강의)

잉크보다 피에 더 가까운 시인, 파블로 네루다! 순수시와 참여시, 초현실주의와 현실주의, 역사와 신화, 부드러움과 단호함, 고독과 인간적 연대, 나르시시즘과 열린 광장의 꿈을 아우르는 광대한 상상력! 위대한 역사적 신화에서 일상적인 사물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현실의 해석자였던 네루다의 시편들을 대서사시 <모두의 노래>를 중심으로 탐사한다.

이 백 이영주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1월 8일 강의)

이태백은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시의 신선'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의 드라마 같은 인생은 천년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시는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입 학 안 내

교 육 기 간 2013년 8월 28일(수) ~ 2014년 1월 22일(수)
매주 수요일 18:30 ~ 22:00 (1일 2강좌)

원서교부 및 접수 2013년 7월 8일(월) - 2013년 8월 2일(금)

문 의 처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 사무국
전화 02) 880-6291
이메일 snuifp@snu.ac.kr
홈페이지 <http://www.snuifp.com>

추 천 의 글

/ 모 휘 / (주)대덕강업 대표이사 / IFP 8기

음식재료만 모으던 삶이 훌륭한 음식과 술을 만들어 멋진 사람들과 나누는 Chef가 되는 마법같은 과정, 행복합니다!

/ 박영욱 / (주)에너셀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 IFP 6기

일상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다 인문학이란 배에 구조된
가여운 조난자(遭難者)가 비로소 사람의 향기도 맡고 인생의 의미도 느낀다.

/ 백강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IFP 8기

현존하는 최고 지식의 향연에의 초대, 무엇을 위한 도구나 구별 짓기 위한
장식이 아닌 인간 그 자체만을 탐구하는 지적인 도전, 그 과정에서 이루어내는
타자와의 진실한 마주침, 매주 수요일 저녁 IFP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건강한 금융을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금융인들이
사회 곳곳에 필요한 금융의 역할을 찾아
실질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하나금융그룹이 생각하는 건강한 금융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하는 건강한 금융 Project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힘을 드리는
희망금융플라자



고객에게 힘을 드리는
건강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하나사랑봉사단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하나 Kids of Asia, 다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
하나케어센터



육아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하나푸르니어린이집

하나은행 | 외환은행

하나SK카드 | 하나대투증권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외환캐피탈
하나다올신탁 | 하나저축은행 | 외환선물 | 하나다올자산운용 | 외환펀드서비스

건강한 금융을 생각합니다
하나금융그룹